

A Study on Social Integration Process
of Immigrated Youth in Goyang City

고양시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통합과정에 관한연구

황복선

GYRI 고양시정연구원
GOYANG RESEARCH INSTITUTE

A Study on Social Integration Process of Immigrated Youth in Goyang City

고양시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통합과정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황복선(시민연구자)

공동연구자

전성훈(고양시정연구원, 연구기획팀, 부연구위원)

발행일 2020년 12월 03일

저자 황복선, 전성훈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yri.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제2장 고양시 중도입국청소년에 관한 이론적 논의	7
제1절 중도입국청소년에 관한 논의	9
제2절 중도입국청소년과 사회통합	16
제3절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이론	20
제4절 선행연구	26
제3장 고양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29
제1절 전국 중도입국청소년 현황분석	31
제2절 광역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분석	37
제3절 고양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분석	38
제4절 소결	43
제4장 고양시 중도입국청소년 사회통합과정 분석	45
제1절 분석 설계	47
제2절 조사 내용의 구성	50
제3절 심층면접 분석 결과	52

제5장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정책 제언	75
제1절 연구 결과분석 요약	77
제2절 정책 제언	79
참고문헌	82

표 목차

[표 2-1] 중도입국청소년의 용어 정의	10
[표 2-2] 중도입국청소년의 유형	10
[표 2-3]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14
[표 2-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사회통합개념 관련 내용	16
[표 2-5]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사회통합개념 관련 내용	16
[표 2-6]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사회통합개념 관련 내용	17
[표 2-7] 중도입국청소년과 사회통합 유형	22
[표 2-8] 중도입국청소년과 이민자통합 모델 요소	25
[표 2-9] 중도입국청소년 사회통합 선행연구	27
[표 3-1] 전국 중도입국 학생 수	31
[표 3-2] 경기도 중도입국 학생 수	32
[표 3-3] 법무부 지역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33
[표 3-4]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 자격별 현황	34
[표 3-5]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 국적별·연령별 현황	34
[표 3-6] 행정안전부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35
[표 3-7] 국내 거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유형별 규정 추정	35
[표 3-8] 고양시 각 구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36
[표 3-9] 행정안전부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37
[표 3-10] 고양시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2016-2018)	38
[표 3-11] 고양시 각 구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39
[표 3-12] 고양시교육지원청 다문화사업 학교 현황	40
[표 3-13] 고양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현황	41
[표 3-14] 고양시 중도입국청소년 한국사회 적응지원 현황	42
[표 4-1] 질문지 주요 내용	49
[표 4-2] 심층인터뷰 대상자	52

[표 4-3] 근거자료의 범주화	53
[표 4-4] 중도입국청소년의 유형별 분석	73

그림 목차

[그림 2-1] 중도입국청소년과 사회통합 유형	19
[그림 2-2] 이민사회통합 모델	23

요 약

1. 서론

□ 연구배경

- 통계청에서는 학령인구(6세~21세)가 2015년에는 892만 명으로 나타나며 2065년에는 459만 명으로 감소할 예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중도입국청소년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함.

□ 연구목적

-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통합과정을 살펴보고 이론에 근거한 사회통합 모델 제시와 사회통합의 촉진 요소들을 밝혀,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사회통합정책을 제언

□ 연구방법

	구분	주요 내용
연구 범위	공간적 범위	고양시 관내
	시간적 범위	2020년 현재
	대상적 범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중도입국청소년으로 3년 이상 관내에 체류한 17~24세 중도입국청소년
	내용적 범위	현황분석/ 정책분석/ 사회통합과정 분석
연구 방법	문헌연구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학술 및 정책보고서 검토
	심층면접분석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2. 중도입국청소년과 사회통합

□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의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의 연구에 의하면 중도입국자녀를 외국에서 태어난 뒤 성장 과정 중에 국내로 입국하여 체류하는 것으로 외국인가정의 중도입국자녀와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자녀로 유형화함.
- 중도입국청소년의 개념을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는 원인은 법령에 언급하거나 학술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연구자들의 연구목적과 관점에 따라 그 범위와 개념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 본 연구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신분에 의해 외국국적, 귀화, 한국으로 유형화하고자 함.

□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통합 중요성

-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1순위에 해당하는 사회통합 대상으로 이민정책에서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통한 사회통합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민배경을 가진 1.5세대의 사회통합의 문제는 미래 한국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논의와 이민정책의 방향성 마련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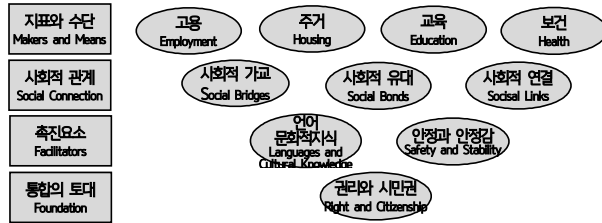
□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통합과 상호문화주의

- 최병두(2014)의 연구에서 다문화주의는 개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여러 문화들이 상호 연결됨 없이 단지 병존하는 상황에 머무는 경향이 있지만, 상호문화주의는 서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대화와 교류, 서로 간에 존재하는 경계와 장애물의 극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임을 함축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문화주의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는 상호관계 또는 만남이라 하였음.

□ 중도입국청소년의 이민자통합 모델

- 사회통합의 영향요인 에이거와 스트랭(2008)이 개발한 ‘이민자 통합 모델(migrant integration model)’에서 찾음
 - 에이거와 스트랭은 난민의 사회통합 연구에서 통합의 토대, 촉진 요소, 사회적 관계, 지표와 수단으로 구성된 분석틀 제안



자료: Alastair Ager and Strang 2008, p.170

3. 중도입국청소년의 현황

□ 각 부처별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 교육부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 2019년 4월 1일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의 다문화학생은 총 137,225명이며 이 수는 전체 학생의 2.5%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2.3% 증가
 -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중도입국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2년

4,288명, 2013년 4,922명, 2014년 5,602명, 2015년 6,261명, 2016년 7,418명, 2017년 7,792명, 2018년 8,320명, 2019년 8,697명으로 지속적 유입되고 있음.

- 외국인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수도 2012년 2,626명, 2013년 5,044명, 2014년 4,706명, 2015년 8,176명, 2016년 12,634명, 2017년 12,281명, 2018년 15,629명, 2019년 20,459명으로 늘고 있음.
- 법무부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 법무부의 2019년 등록외국인 현황에서 24세 이하의 외국인을 살펴보면 총 등록외국인의 수는 1,246,626명이며, 경기도 등록외국인 수는 408,526명임.
 - 경기도 등록외국인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0~4세는 13,836명, 5~9세는 8,190명, 10~14세는 4,185명, 15~19세는 6,061명, 20~24세 35,277명으로 나타남. 20~24세 등록외국인의 경우는 중도입국청소년이 아닌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부분 차지할 것으로 추측됨.
- 행정안전부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 행정안전부(2018) 통계에 따르면 전국 외국인주민의 자녀의 수가 237,506명으로 나타남, 이 중 귀화하거나 외국국적인 배우자의 자녀가 11,361명으로 나타남.

□ 고양시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현황

- 경기도교육청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 특별학급, 한국어학급, 상호문화 이해학교, 다문화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비상시적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한국어교실이 운영됨.
- 법무부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조기적응을 돕기 위해 3시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1곳)
- 여성가족부는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이주배경무기청소년센터

터를 운영하며, 고양시에서는 '레인보우스쿨' 위탁받아 운영(1곳)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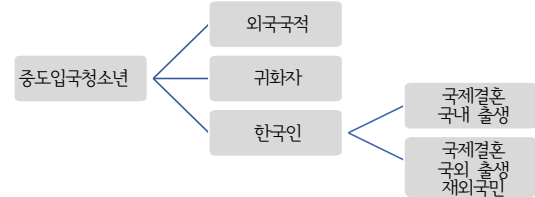
- 고양시는 2013년부터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사업으로 한국어교육, 심리상담, 미술활동, 음악활동, 문화활동 등을 2017년까지 지원함.
- 2018년부터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지원 없음

4. 심층면접 분석 결과

□ 분석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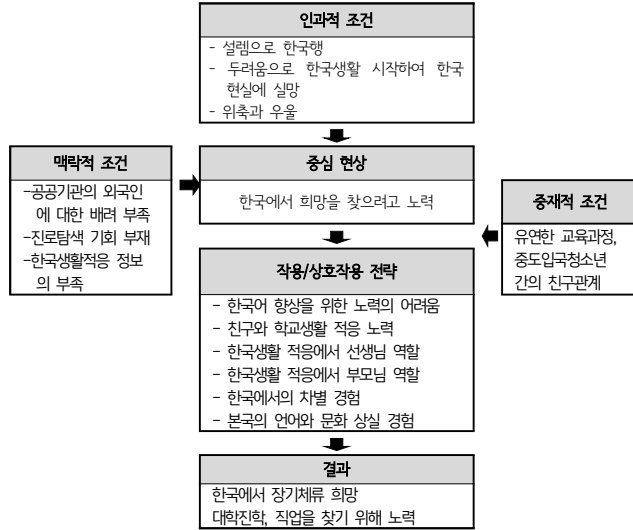
□ 연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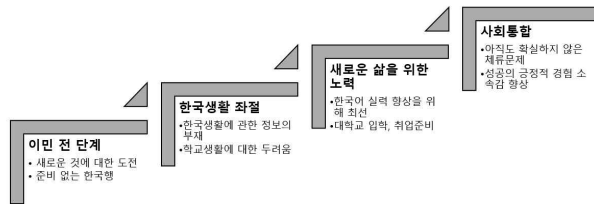
- 중도입국청소년 국적에 따라 외국인, 귀화자, 한국인으로 유형화
 - 첫째, '결혼이민자 등'의 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외국인에 재한외국인 아동청소년,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외국 국적 재외아동청소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 난민 지위 인정자 또는 난민 지위 인정 신청자 아동청소년, 국제결혼 가정 중 부모 또는 아동·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외국 국적을 유지할 경우 그러나 부모 또는 아동·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외국 국적을 유지할 경우
 - 둘째, 귀화자는 '다문화가족' 부모가 그 자녀를 입양한 경우
 - 셋째, 한국인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을 정의하면서 부모 중 한쪽이 출생 또는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제2조 제1호).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출생한 재외국민의 자녀로서 이들은 다문화가족 범주에 포함
- 이들의 신분은 외국인으로 생활하다 귀화자가 되기도 하고,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인이 되기도 하는 등 유동성을 보임.

□ 심층면접 분석 결과

○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범주 구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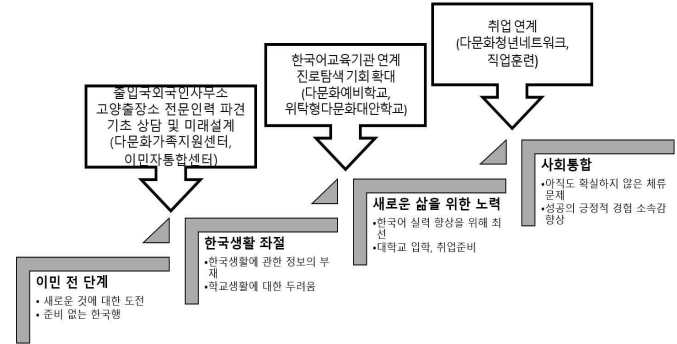


○ 사회통합과정 분석



5. 정책제언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을 위한 고양시 맞춤형 정책모형



○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입학 초기부터 교육지원이 필요함.

- 관내 외국인관서에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학교 편입, 한국어교육기관, 병원 등의 공공서비스 기관과 원활한 연계가 필요함.

○ 중도입국청소년 사회통합의 촉진요소인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고양시 내 초·중·고등학교 예비학교에 지원과 연계체계 마련이 시급함.

○ 외국인 신분인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신분의 안정성으로 영주나 국적취득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상담 창구 마련이 필요.

○ 취업 정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마련 필요.

□ **고양시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기관 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전담 기관 및 전문가 필요**

-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입국 초기부터 공교육 진입과 고양시 관내의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 초기 상담과 지역 네트워크를 연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배치

□ **중도입국청소년의 부모에게 한국학교 정보제공**

-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한국생활 조기적응을 위해 중도입국청소년과 부모에게 한국학교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이 실시되도록 제도적 마련되어야 함.
- 중도입국청소년의 취업을 위한 취업정보와 교육이 필요함.

□ **상호문화주의 프로그램 필요**

- 중도입국청소년과 고양시 관내 청소년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교육의 장 마련이 시급함.
-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본국에 대한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통계청이 2016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15~2065'에 따르면, 한국의 총 인구 수는 2031년에 5,29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65년에는 4,30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학령인구(6세~21세)는 2015년에 892만 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65년 459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력 감소는 앞으로 미래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커다란 과제이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제도적 지원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인구감소 대책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국내로 이주한 중도입국청소년의 입국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포용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과반수가 입국 초기 3개월 동안 혼자 집에서 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전경숙, 2012) 응답자의 약 30% 이상이 혼자 집에서 지낸 시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현옥 외, 2016). 그 중 1년 이상 혼자 집에서 지낸 경우가 약 6% 정도였고, 적어도 1개월 이상 집에서 혼자 지낸 경우도 27.6%였다. 전경숙 외(2012)는 중도입국청소년이 공교육 및 직업훈련교육과 같은 공적인 체계로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한 교육기회를 가지지 못하거나 지연은 이들의 원만한 진로선택과 준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하였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학령기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중단 현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의 학업중단 사례는 2012년 6,764명, 2013년 9,720명으로 급증하였다(윤철경 외, 2015). 국내에서 태어난 다문화 학생의 경우 11.2%가 니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는 37.7%로 다문화학생의 3배 이상 높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그들이 가진 역량들을 계발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20세 이상 집단의 재학율은 18.3%에 머물러 교육에 의한 계층이동 촉진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양계민·조혜영, 2011).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사회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교육진입의 문제, 학교부적응에 의한 학업중단, 니트 현상의 증가 등의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적응과 부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공적 사회통합을 이룬 중도입국청소년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사회통합과정에서 겪은 경험들을 연구함으로써 사회통합의 촉진 요소를 밝힐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책 마련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통합과정을 살펴보고 이론에 근거한 사회통합 모델 제시와 사회통합의 촉진 요소들을 밝혀,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사회통합정책을 제언하는 데 있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 연구방법

첫째, 문헌고찰을 통하여 중도입국청소년과 이민자 사회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설계에 대해서 예비조사, 연구방법, 이론적 표본추출 과정(심층 면접 질문지 구성,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 순으로 구성한다.

셋째, 연구 결과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록 하고 패러다임모형에 의한 이론적 구조의 분석과 과정의 각 단계에 대한 분석, 사회통합 유형을 제시한다.

넷째,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학문적 의의와 중도입국청소년의 원활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2. 연구범위

내용적 범위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통합과정을 표식과 수단, 사회적관계, 촉진요소, 통합의 토대를 근거이론에 따라 분석하여 사회통합 유형을 밝히는 데 있다.

대상적 범위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의에 포함되는 후기 청소년기인 17세~24세 중 3년 이상 관내 체류한 중도입국청소년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2020년 현재로 한정하며 공간적 범위는 고양시 관내 거주하거나 학교를 다닌 중도입국청소년으로 한다.

제 2 장

중도입국청소년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논의

제1절 중도입국청소년의 의미

제2절 중도입국청소년과 사회통합

제3절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통합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4절 선행연구

제1절 중도입국청소년의 의의

1. 중도입국청소년의 개념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용어의 개념과 범위를 각 부처별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대한 것을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2015)에서는 ‘외국인주민자녀’라고 지칭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로 정의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자녀의 범주에는 ‘외국인-한국인 부모’, ‘외국인부모’, ‘한국인부모’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92.7%는 외국인-한국인부모 가정의 자녀로 나타난다.

법무부(2012)는 이민배경청소년을 외국에서 성장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가정의 자녀로 정의하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을 결혼이민자의 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부(2012)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로 구분하였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출생지에 따라 또 다시 구분하여 ‘국내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로 유형화 하였다. 여기서 중도입국자녀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태어난 자녀와 국제결혼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로 정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소속 기관인 무지개청소년센터(2011)는 중도입국청소년의 개념을 외국인 부모를 따라 입국한 청소년, 근로 및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청소년, 제3국에서 출생한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부처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다.

[표 2-1] 부차별 중도입국청소년에 관한 개념 정의

부차별	용어	정의
법무부 (2012)	이민배경이동 중도입국청소년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가정의 자녀 구분
교육부 (2012)	중도입국자녀	중도입국자녀는 결혼이민자가 재혼 후에 데려온 자녀, 국제결혼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
여성가족부 무지개청소년 (2011)	이주배경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근로 및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무연고 청소년, 외국인 부모를 따라 입국한 청소년,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중국인 등) 사이의 자녀로 제3국에서 출생한 청소년을 포함한 중도입국청소년
행정안전부 (2015)	외국인주민주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의 연구에 의하면 중도입국 자녀를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에 국내로 입국 및 체류하게 된 경우이며 그 유형을 외국인근로자의 부모를 따라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가정 자녀와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의 국제결혼 중 재혼으로 부모를 따라 입국한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구분하였다.

[표 2-2] 중도입국청소년의 유형

유형	의미	세부 유형	의미	국적
국제결혼 가정자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 (초혼가정, 이혼가정, 재혼가정 포함)	국내 출생	국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한국
		중도 입국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 부모의 재혼 및 취업 등으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자녀	외국 또는 한국 (귀화시)
외국인 가정자녀	외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 포함)	국내 출생	외국인 부부가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외국
		중도 입국	외국인 부모를 따라 국내로 이주한 자녀	외국

자료: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

위와 같이 중도입국청소년의 개념을 각자 다르게 정의하는 원인은 법령에 언급되지 않았으며 개별 연구의 목적과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해 국제결혼이민자 자녀, 외국국적동포의 자녀,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유학생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중 제3국에서 출생하여 입국한 자녀, 난민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 한국으로 입국한 17~24세 연령의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2. 중도입국청소년에 관한 논의

1)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생활 적응 연구에 관한 논의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한국생활 적응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과반수가 입국 초기 3개월 동안 아무 곳도 가지 않고 혼자 집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전경숙, 2012). 또한 신현옥 외(2013)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약 30% 이상이 혼자 집에서 지낸 시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 혼자 집에서 지낸 경우 6%, 적어도 1개월 이상 집에서 혼자 방치되었던 경우도 27.6%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도입국청소년은 준비 없는 한국 입국으로 인해 입국초기부터 심리적인 어려움을 안고 한국생활에 적응해 나아가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 10명 중 7명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 부모와 떨어져 지낸 경험이 있고 3년 이상 떨어져 있었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42%로 조사하였다(배상률, 2016).

최영미(2019)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입국 후에도 가족과 분리되어 또 다시 부모와의 별거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자녀 간의 장기간 부재의 시간 동안 낯섬을 극복하는 가족 적응의 과정이 필요하며 중도입국청소년의 안정적인 심리-정서 지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 중도입국청소년 교육지원 연구에 관한 논의

양계민·조혜영(2012)에 따르면 한국어능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갈등이나 부모의 학대수준이 낮고 각종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친구의 지지가 높고 자아존중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입국청소년은 한국어능력이 낮아 학교를 거부당하거나 자신의 나이에 비해 낮은 학년으로 배정받으며, 일상생활 한국어 교육 후 공교육으로 진입하더라도 교육 체계 안에서 버티기 어려우며, 진학을 위해 직업을 위한 전문 한국어처럼 학습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장명선 외, 2012).

서덕희 외(2015)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취업 후에도 한국어능력의 문제나 업무의 어려움 때문에 중도 그만두는 경우가 많으며 중도입국청소년은 직업과 관련된 전문 한국어와 한국어 발음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존 한국어 교육 체계에는 교육이 어려우므로 한국어 교육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한국어 실력 부족은 공교육 진입기간의 장기화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주된 이유라고 하고 있다(배상률, 2016). 고남정·오성배(2016)는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 재학, 학교 밖 기관 이용 여부로 구별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기관의 도움을 받은 중도입국청소년이 그 뒤를 이었으며, 마지막으로 학교에 다니지도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지 못한 중도입국청소년 순 한국어 능력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한국어 능력 향상 방법은 학교에 진입하는 방법이며, 그 다음으로 기관에서 도움을 주어 한국어능력을 향상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능력 향상은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책에서 가장 우선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방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학령기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중단 현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의 학업중단 사례는 2012년 6,764명, 2013년 9,720명으로 급증하였다(윤철경 외, 2015). 또한 중도입국청소년 중에

서 15세 이상된 경우 취업교육이나 훈련,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전체의 1/3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은 평균 3.65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평균 3.62점, '3년 이상 5년 미만'이 평균 3.61점, '5년 이상'이 평균 3.47점으로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배상률, 2016).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40%는 '한국어가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으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정보가 부족해서'가 29.6%, '심리 및 정서적으로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10% 등으로 나타났다(배상률, 2016). 또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한국사회를 떠날 가능성은 36.9%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를 '한국보다 내 꿈을 실현하기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라는 응답이 19.2%를 차지했다.

중도입국청소년은 글로벌시대 인재임에 불구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교육역량을 보다 강화하여 한국의 구성원으로서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3) 중도입국청소년 처우 및 정책 연구에 관한 논의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체류 안정성의 문제이다. 좌동훈(2014)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의 불안정한 체류신분이 정서적인 불안을 증폭시키며, 대다수의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체류자격이 불안정하여 한국에 대해 커다란 희망을 안고 와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지적하였다. 체류자격의 문제는 중도입국청소년이 한국에서의 진로문제를 생각할 때 언어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다음으로 심각하게 여기는 사항으로 조사하였다(서덕희 외, 2015). 가족의 재결합을 인정하는 체류자격은 거주(F-2), 방문동거(F-1), 동반(F-3), 결혼이민(F-6)이 있다. 이에 따라 중도입국청소년에게 부여되는 체류 유형은 거주, 방문동거, 동반, 유학 및 일반연수, 영주 등이 있다.

[표2-3] 중도입국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연도)	연구대상 및 연구 결과
최영미 이지선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거주 중도입국청소년 13명 -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생활 적응에 선행되어야 하는 가족 내에서의 갈등 및 적응의 문제 - 중도입국청소년의 입국 동기는 자발적/비자발적 원인이 중첩되어 있음. -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입국 후에도 가족과 분리되어 또 다시 부모와의 별거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부모-자녀 간의 장기간 부재의 시간 동안 낯섬을 극복하는 가족 적응의 과정이 필요함. - 중도입국청소년의 안정적인 심리-정서 지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신윤경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 다문화수용성 조사 이용 - 이주 배경 이동의 생애사적 관점에서 법적인 지위, 성장과 발달, 취업과 자립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여 글로벌 인구 이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
전경숙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입국청소년 17명 심층면접조사 - 사전준비 없이 비자발적 선택에 의한 입국, 가족관계 및 부모의 지지에 따른 초기적응의 격차, 진로선택 및 준비과정의 어려움, 이주 후 심리-사회적응의 어려움,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진로계획의 부재
고남정, 오성배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데이터 중 중도입국청소년 총 619명 - 재학 여부에 따른 한국어 능력비교, 부모의 학력, 관계만족도, 교육기대 수준 등
배상률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중도입국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약 600명 대상 - 거주기간이 갈수록 진로정체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서덕희 외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입국청소년 약 3만 명 추정. - 이주배경 특성을 고려한 직업탐색 프로그램 확대,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모형 제시
좌동훈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및 몽골 출신 중도입국청소년 187명(9~24세) - 출신국적, 문화적응유형, 한국어능력, 심리사회적 적응
양계민, 조혜영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출신 중도입국청소년 403명 - 문화적응스트레스, 부모학대 및 방임, 사회적지지, 심리사회적 적응
장명선, 송연숙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입국 청소년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욕구도에 관한 심층면접 조사 실시 - 나름의 진로를 계획하며, 한국어와 사회적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제2절 중도입국청소년과 사회통합

1. 중도입국청소년 사회통합의 개념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대해 표준적이고 학술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민자가 유입국의 구성원으로서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참여를 통해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문병기 외, 2015).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유추할 수 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하면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이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2-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사회통합개념 관련 내용

제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표2-5]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사회통합개념 관련 내용

제조 (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하면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지원을 하며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에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라는 논리적 추측이 가능하다.

[표2-6]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사회통합개념 관련 내용

제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2. 중도입국청소년 사회통합의 중요성

2020년 현재 중도입국청소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반해 국내 인구 증가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이 한국의 구성원으로서 한국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사회통합을 이룬다면 우리나라의 생산인구 증가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에 우리 사회는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보다 적극적인 포용정책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할 시점이다. 이민 선진국들의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이미 1990년대부터 청소년기의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제도적으로 마련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성인 이민자들보다 사회복지, 교육, 보건, 건강, 고용, 빈곤 등의 다양한 정책과 긴밀히 연관하여 통합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해 왔다. 이민배경을 가진 1.5세대, 2세대의 사회통합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 방안에 대해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체류유형도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체류 기간과 활동의 영역들이 복잡하다. 가족원 일부 혹은 전부의 일반귀화, 간이귀화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된 이들은 법제도적으로는 엄연히 ‘다문화가족’이지만 실제 다문화가족정책 관계에서는 국제결혼을 통

해 다문화가족이 되는 이들과 상당히 다른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결혼-이주와 동시에 다문화가족으로서 정책대상이 되는 결혼이민자와 달리, 일반귀화자는 한국생활을 해온 상당기간 동안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지 않은 채 관련 정책 테두리 밖에 놓여 있다가 귀화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다문화가족으로서 정책대상이 되는 것이다. 중도입국청소년 역시 국민의 배우자의 자녀 입양 등의 절차, 부나 모의 국적취득에 의해 입양의 절차 등이 이루어질 때에만 정책의 대상이 되며 그에 따른 지원들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 부모의 체류유형은 국적취득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단순히 국제결혼에 의한 중도입국청소년만이 아니라 외국인적 동포, 유학생의 자녀,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등 다양한 유형으로 학령기의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통합 정책도 그에 맞도록 더욱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중도입국청소년들 국적취득의 경우 즉 귀화가 아니더라도 한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통합이 가능한 법과 지원들을 구체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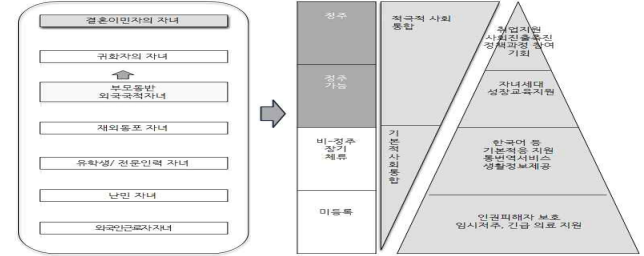
사회통합대상 측면에서는 국민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가진 이민자를 다시 한국사회의 영구적인 구성원 여부나 가능성, 한국인과의 네트워크나 혈연 민족적 유대관계 여부, 인도적 사유의 순서에 따라 내부적인 우선순위를 정했다(정영태, 2014).

즉 제1순위 통합대상은 한국사회의 영구적인 구성원이 되었거나 그리될 가능성이 큰 이민자로 영주자격 취득자와 귀화자 그리고 이들의 자녀, 외국인유학생, 전문외국인력이 포함된다(차용호, 2015). 제2순위 통합대상은 한국인과의 네트워크나 혈연적 민족적 유대관계를 가진 이민자로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가족결합을 통한 입국한 이들의 본국 가족이 해당되고(차용호, 2015). 제3순위 통합대상은 인도적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이민자로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인도적 체류의 허가자, 인권 침해를 받은 외국인이 포함된다(차용호, 2015).

마지막 제4순위에는 단기순환의 원칙이 적용되어 한국사회의 일시적인 구성원이거나 일시적 구성원이 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근로자와 숙련기능직 외국인근로

자가 해당된다고 했다(차용호, 2015).

【그림 2-1】 중도입국청소년과 사회통합 유형



자료: 김이선 외(2011)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1순위에 해당되는 사회통합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중도입국청소년의 이민정책에서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통합이 필요하다. 사회적 포용이란 다양한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생활 조건이나 욕구가 결핍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갈등과 분열의 감소를 통해 배제적 상황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황복선, 2019).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포용 개념의 적용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범위에서 배제(excluded) 영역을 파악하고 정책적·제도적으로 포용(inclusion)하고자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시점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의 가치와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해 나아가려면 정책적으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황복선, 2019).

제3절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통합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중도입국청소년 사회통합 모형

1) 차별적 배제모형

차별적 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은 인종적 소수자의 제거 및 최소화를 그 정책목표로 삼는다. 이는 거주 국가 및 사회가 원치 않는 이민자의 영주가능성을 막고 내국인과 차별적 대우를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주 국가는 적극적으로 규제하며 이주민 자체를 이방인 혹은 위협적 존재로 인식하여 단속 및 추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거주국의 주류문화에 대비해 볼 때 이주민의 하위문화는 이질적인 것으로서 차별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한다(문병기 외, 2015).

차별적 배제모형은 문화적 단일성을 추구하며, 거주국이 엄격한 기준으로 이주민을 선택한다. 또한 이주민들이 자국의 제도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민자의 사회참여도는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2) 동화모형

동화모형(assimilationist model)은 단일문화주의의 한 형태이며 사회 소수자에 대해 친화적이다. 사회소수자 집단이나 이민자 각자가 주류집단의 문화와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흡수통합방식이다. 따라서 이민자에 대해 ‘국민됨’을 전제로 조속한 동화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하려 하는데 소수자를 주류사회로 동화시키기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 및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며 제한적 지원을 한다(문병기 외, 2015).

동화모형의 목표는 이민자가 출신국의 문화·언어·사회적 특성들을 포기하고 거주 국가 내 주류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화모형은 주류문화로 단일문화를 추구하며, 주류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거주국의 제도와 언어, 문화에 수용되

기를 향시 일방향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Gordon(1964)은 동화를 다시 ‘흡수 동화’와 ‘용광로 동화’라는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흡수 동화’는 소수민족집단의 구성원이 지배집단의 생활방식에 통합되고 적응하는 것을 말하며 ‘용광로 동화’는 소수민족집단과 주류사회의 문화가 한데 섞여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지칭한다.

3) 다문화주의 모형

다문화모형(multicultural model)은 이주민을 상호존중과 관용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국가는 다양성 인정과 공존을 통한 사회통합을 정책의 목표로 삼으며 소수 이민자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주의 모형에서 의미하는 다문화주의는 사실상 1970년대를 전후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탈근대화주의(postmodernism)에 대한 관심과 같이하여 부상된 개념이다(문병기, 2016) 다문화주의 모형의 목표는 거주 국가 내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으로써 이민자가 그들만의 언어와 가치, 문화를 지켜나가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4) 상호문화주의 모형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e)은 일반적으로 말해 “한 사회 속에 존재하는 문화 집단들 간의 교류에 관한 철학이다.”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시키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지는 이 주제는 수용사회가 새로 들어온 이민자들을 통합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문화적 차이를 서로 알고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상호문화주의 목표는 인권과 같이 보편적인 서구 문명에 기초한 공동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하는데 있다. 이런 공동의 사회적 가치의 신장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인권과 민주주의의 존중이라는 맥락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장한업, 2010). 사회구성원들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라는 이 전제조건은 다문화주의의 이념 속에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조건이다.

【표 2-7】 중도입국청소년과 사회통합 유형

	차별적 배제 모형	동화주의 모형	다문화주의 모형		상호주의 모형
			문화다원주의	다문화주의	
정책 방향성	국가 및 사회가 원치 않는 이민자의 영주가능성을 막고 내국인과 차별적 대우를 유지하려 함	'국민됨'을 전제로 조속한 동화를 자원하고 제도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하려 함	문화다원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분명한 주류사회가 존재함을 전제. 주류사회를 중심으로 문화다원성을 수용함	소수자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존을 지원하여 적극적 조치 등 유대 조치를 마련하려 함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호이해 및 조화를 끌어내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도시 공간에서의 문화적 다양성을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함
정책 목표	인종적 소수자의 제거 및 최소화	소수자의 주류사회 동화	다양성 인정과 공존을 통한 사회통합		다양한 문화들 간의 상호 존중
국가 역할	적극적 규제	제한적 지원	자유방임	적극적 지원	-
이민자에 대한 관점	이방인, 위협적 존재	완전한 동화를 전제로 인정	상호 존중과 관용		교류
정책의 영주가 능성	불가능	비교적 가능	가능		가능
국적 부여 원칙	숙인주의, 엄격한 조건	속지주의, 용이한 조건	속지주의, 이중국적 허용		속지주의, 이중국적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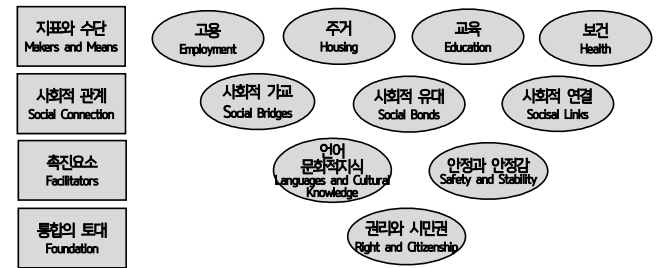
자료: 김지문, 2012 박진경, 2010:266 ; 이보미장서영, 2010:18, 최병두, 2014 철조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적,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계몽주의 철학을 충실히 따르고 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법적 전통과 관련된 보편성의 원칙을 중시”(M. Abdallah-Preteuille, 장한열 역, 2010:59)한다. 상호문화주의는 현상 기술을 넘어서 당위적 지향성을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주장된다. 즉 “상호문화 철학이 현실을 기술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현실의 변화를 지향하는 강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학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상호문화성’ 개념이 그 성격을 보다 더 잘 표현해 주는 개념”이라고 주장된다(최현덕, 2009:310). 상호문화주의는 서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대화와 교류, 서로 간에 존재하는 경계와 장애물의 극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임을 함축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문화주의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는 상호관계 또는 만남이다(최현덕, 2009: 314-316).

2. 고양시 중도입국청소년과 이민자통합모델 이론

본 연구에서 사회통합의 영향요인들을 에이저와 스트랭(Alastair Ager and Strang 2008)이 개발한 ‘이민자 통합 모델(migrant integration model)’에서 찾았다. 에이저와 스트랭은 영국에서 난민의 사회통합을 연구하면서 통합의 토대, 사회적 관계, 촉진요소, 표식과 수단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2-2】 이민사회통합 모델



자료: Alastair Ager and Strang 2008, p.170

통합의 토대는 권리와 시민권으로 영주권, 시민권(귀화) 취득은 성공적인 통합, 영주권자 사회통합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그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 및 사회적 서비스 지원이다. 촉진요소로서는 언어문화적 지식과 안전과 안정감이며, 언어문화적 지식은 수용국의 언어구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이 다.

사회적 관계에는 사회적 가교, 사회적 유대, 사회적 연결이 하위영역이다. 첫째, 사회적 가교는 이민자와 지역 원주민간에 형성되는 관계망으로 이민자의 정착 및 사회적 참여 등의 기회로 확장 계기로 설명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유대는 자국 출신의 이민자와의 공동체 형성이며 셋째, 사회적 연결은 중도입국청소년과 지원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사회적 연결과정에서 이민자 단체를 포함한 지역공동체,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 역할의 중요하다.

통합지표와 수단은 고용, 주거, 교육, 보건이다. 첫째, 고용은 경제적 통합의 핵심지표로 이주민의 노동시장 참여에 있어 균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 자신의 기술과 자격에 적합한 직업활동 요구이며 둘째, 주거는 이주민의 건강한 주거환경과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형태와 관련이며 셋째, 교육은 교육의 기회로 교육은 교육의 기회의 공평한 제공(고등교육과 기술교육 포함)이며 넷째, 보건의 보건의료시설 이용서비스에 있어서 이민자에게 통역서비스 제공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와 수단에 심리적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가치적 통합으로 소속감, 신뢰감, 다문화수용성이다. 첫째, 소속감은 지역사회 소속감, 국민소속감이며 둘째, 신뢰감은 동등하고 역량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정받는 정도 셋째, 다문화수용성은 이민자의 전통 문화와 정체성을 인정받는 정도이다.

심리적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리적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이민자의 사회통합에서 영향 요인이기도 하다. 캐나다 거주 홍콩 청소년 이민자의 소속감과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초우(chow, 2007) 등은 소속감이 이민국에서 삶의 만족과 영향관계를 제시하였으며 이민자의 사회통합의 영향요인으로 신뢰감에 대해 변상준(2009), 박희봉·김동현(2014) 등이 연구한 바 있다.

이민자사회통합 모델을 근거하여 질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8] 중도입국청소년과 이민자통합 모델 요소

상위영역	하위영역	내용	
통합의 토대	권리와 시민권	시민권, 서비스와 권리의 보장과 접근성에 대한 형평성, 법적, 복지혜택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촉진 요소	언어문화적 지식	한국의 언어, 관습, 문화, 법과 제도, 생활 관련 지식, 신문, 언론매체 이해도,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	
	안전과 안정감	차별 정도와 인지도, 기회평등 인식, 치안과 생활 불안감, 지역만족도	
사회적 관계	사회적 가교	한국사회 조직 및 단체 참여도, 사회적 자원망	
	사회적 결속	이민자 관련 문화행사, 학교교육 참여도	
표식과 수단	사회적 연계	정부 및 지원 조직 및 단체와의 연계망 및 지원 만족도	
	체계 통합	고용	경제활동 참여, 소득, 고용 안정성, 생활안정 수준
		주거	주거 형태,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 안정성
		교육	초중고 이수, 학령기전 교육참여 수준, 대학입학 현황, 학교만족도, 사교육참여도
	가치 통합	보건	병원치료 여부, 이용 의료기관 형태, 의료 충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건강행위, 주관적 건강상태
		소속감	지역사회 소속감, 국민소속감, 학교 소속감, 회사 소속감
		신뢰감	동등하고 역량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정받는 정도
		다문화 수용성	중도입국청소년의 출신 국가의 전통문화와 정체성이 인정받는 정도

제4절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통합에 관한 선행연구

윤인진(2019)은 2016년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조사를 수집하여 통합의 토대로 국민으로서의 권리(시민권, 기본권, 권리문제), 촉진요소(한국어에 대한 이해), 한국법, 제도, 관습 이해, 외래어 및 한자이해, 고용차별, 시설이용차별, 교육시설차별, 성희롱 및 성차별), 사회관계(남한주민과 평소인사 정도, 지원서비스 접근성), 표식과 수단(고용수준, 지역주민, 한국국민, 한민족으로 가깝게 느끼는 정도, 남북한 출신차이, 북한의 생활습관 유지 및 북한식 정체성 지속 여부)로 구성하였다.

곽윤경 외(2019)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만족스러운 생활,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일자리, 교육, 건강관리 및 대중교통, 주택 등과 같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개인적인 적금을 제외한 수입 손실 위험에 대한 보호 차원의 접근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성순(2018)은 통합의 토대(2010년 여성가족부의 베트남 현지 인터뷰 조사 이혼사별 후 귀국한 결혼이민자), 촉진요소(한국어능력시험 혼인 상태별, 차별 경험), 사회적 관계(자신과 집안일 의논 상대, 일자리 관련 의논 상대, 자녀교육 관련 의논 상대, 여가나 취미생활 상대, 아플 때 도움 요청 상대, 사회적 유대는 모임참여 의향 없음, 학부모 모임, 모국인 모임, 지역주민 모임, 종교활동, 민간단체 활동 참여율, 사회적 연결은 관련 기관단체 인지율과 이용율), 고용(직업 유형, 주거형태, 교육 및 지원 수요, 건강상태와 우울감 경험 정도)로 구성되어 분석하였다.

이규용 외(2018)은 노동시장 통합정책의 지향 방향과 한국사회 이민사회 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주배경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연구로서 사회적지지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박미정, 2015). 이성순(2013)은 통합의 토대, 촉진요소, 사회적 관계, 통합지표와 수단 등 4개의 상위지수와 10개의 하위지수로 이민자들의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수별 유기적 연계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연구하였다.

문유경 외(2011)는 교육(이민자 정착교육, 이민자 직업교육, 자녀교육, 이민

자 가족 및 배우자 교육), 경제(경제활동, 소득/근로조건, 취업지원), 사회참여 및 사회연결망(정치 및 공직참여, 사회연결망, 정서적 통합), 안전 및 사회권 보장(이민자의 범죄피해 및 발생, 이민자의 사회보험, 이민자의 건강, 이민자 차별 방지), 가족생활(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및 가정폭력, 결혼이민자의 자녀교육, 결혼이민자의 가구소득), 사회통합 환경(이민인구 프로파일, 이민자 지원서비스, 이민자의 입국 및 체류 지원, 다문화이해 증진 교육, 다문화수용)를 구성하여 연구하였다.

【표 2-의 중도입국청소년 사회통합 선행연구

연도	연구제목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내용
2019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 실태 및 대응 방안	곽윤경 주유선 우선희	본 연구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제정, 이민자 참여 지역사회회의기구 재정비 인식 개선 교육, 내국인과 이민자의 교육 확대,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척도 개발.
2019	탈북민의 사회통합 모델과 통합 실태	윤인진	본 연구에서는 국내 탈북민의 사회통합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존 이민자통합 모델들과 지표 체계들을 검토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과 지표체계를 제안하고, 탈북민 관련 법령과 정책, 실태조사 결과들을 참조하여 탈북민의 사회통합 실태 분석.	통합의 토대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며, 촉진요소는 언어문화적 지식 수준은 대체로 양호하고 안전과 안정감의 수준은 대체로 미흡, 사회적관계는 사회적 결속 수준은 양호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적 연계 수준은 대체로 양호하고 표식과 수단은 탈북민의 체제 통합과 가치 통합 수준은 전체적으로 미흡함.
2018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의 사회통합 정책에 관한 연구	이성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에 대한 현황과 생활실태에 관하여 살펴보고 현행 관련 법제와 정책을 근간으로 에이거(A. Ager)와 스트랭(A. Strang)이 개발한 사회통합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통합의 토대, 촉진요소, 사회적 관계, 통합지표와 수단 등 4개의 상위지수와 10개의 하위지수에 따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의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의 특성과 연계기관의 특성을 제고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사회통합 정책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2018	한국사회의 이민과 통합 연구	이규용 김혜순 송영훈 최서리	이민자의 노동시장 통합이라는 실증적 접근을 통한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정책의 지향 방향과 한국사회 이민 사회 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국인 노동시장을 고려한 이민자 유입 및 관리체계, 이민자 취업지원 정책의 기본틀 재정립, 한국의 이민 사회통합 정책 추진방안, 이민정책으로서 성격 및 체계 정립, 정책대상으로 내국인의 세분화와 위상 조정, 추진 주체의 조정과 역할분담을 함.
2015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박미정	사회통합적 관점을 바탕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사회적응력 고양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언하고자 함.	사회적 지지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실증 분석함.
2013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 APIA Act와 STRANG의 사회통합분류 적용	이성순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 외국인정책 등 사회통합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성과 분석을 위하여 에이거와 스트랭이 개발한 사회통합의 분석틀을 적용함.	통합의 토대, 촉진요소, 사회적 관계, 통합지표와 수단 등 4개의 상위 지수와 10개의 하위지수에 따른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그에 따른 내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지수별 유기적 연계방안 등 정책 방향에 관하여 고찰함.
2011	남녀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지표 개발 연구	문유경 전기택	개발된 지표 중 생산가능한 주요한 지표를 중심으로 지표를 생산하여 남녀 결혼이민자의 실태와 사회통합 정도를 분석함.	선행 연구의 이민자 사회통합 영역을 반영하고, 결혼이민자 특화 영역을 설정하고, 정책연계성을 고려함. 세부지표는 이민상태(Immigration Status)별로 검토함으로써 남녀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통합 정도를 파악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는 에이거와 스트랭의 이민자 사회통합 모델을 근거로 하여 통합의 토대, 촉진요소, 사회적 관계, 통합지표와 수단 등 4개 영역과 13개의 하위 범위로 구성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통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 3장 중도입국청소년의 현황

제1절 전국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제2절 경기도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제3절 고양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제4절 소결

제절 전국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1. 각 부처별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1) 교육부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2019년 초중고 학생의 다문화학생은 총 137,225명으로 전체학생의 2.5%를 차지하며, 이는 전년대비 12.3% 증가한 것입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중도입국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2년 4,288명, 2013년 4,922명, 2014년 5,602명, 2015년 6,261명, 2016년 7,418명, 2017년 7,792명, 2018년 8,320명, 2019년 8,697명으로 지속적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인가정의 중도입국청소년의 수도 2012년 2,626명, 2013년 5,044명, 2014년 4,706명, 2015년 8,176명, 2016년 12,634명, 2017년 12,281명, 2018년 15,629명, 2019년 20,459명으로 늘고 있다.

[표 3-1] 전국 중도입국 학생 수

연도	계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2012	46,954	40,040	4,288	2,626
2013	55,780	45,814	4,922	5,044
2014	67,806	57,498	5,602	4,706
2015	82,536	68,099	6,261	8,176
2016	99,186	79,134	7,418	12,634
2017	109,387	89,314	7,792	12,281
2018	122,212	98,263	8,320	15,629
2019	137,225	108,069	8,697	20,459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kedf.re.kr, 2019. 4. 1)

경기도의 다문화학생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은 2017년 25,759명, 2018년 29,099명, 2019년 33,482명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의 다문화학생의 경우 전국 다문화 학생수 대비 24%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의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가정 학생의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 경기도 중도입국 학생 수

연도	다문화 학생			
	계	국내출생	중도입국 ¹⁾	외국인가정
2012	10,413	8,275	1,379	759
2013	12,462	9,566	1,550	1,346
2014	16,013	12,503	1,803	1,707
2015	18,876	14,112	2,088	2,676
2016	23,723	16,549	2,500	4,674
2017	25,759	18,393	2,623	4,743
2018	29,099	20,340	2,687	6,072
2019	33,482	22,666	2,782	8,034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2019. 4. 1, 단위 명)

2) 법무부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현황에서 24세 이하의 외국인인을 살펴보면 총 등록외국

1)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인의 수는 1,246,626명이며, 경기도 등록외국인 수는 408,526명이다.

경기도 등록외국인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0~4세는 13,836명, 5~9세는 8,190명, 10~14세는 4,185명, 15~19세는 6,061명, 20~24세 35,277명으로 나타났다. 20~24세 등록외국인의 경우는 중도입국청소년이 아닌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부분 차지할 것으로 추측된다.

[표 3-3] 법무부 지역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총계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총계	1,246,626	34,056	22,220	13,023	34,133	167,218
서울특별시	283,984	8,573	6,131	3,696	9,981	42,667
부산광역시	45,738	642	453	355	2,320	10,398
대구광역시	28,033	552	323	246	1,088	4,362
인천광역시	67,869	2,934	1,838	1,124	1,728	5,780
광주광역시	22,815	531	360	247	1,147	4,984
대전광역시	18,184	440	257	124	1,069	5,049
울산광역시	20,002	531	337	207	364	2,031
세종특별자치시	4,940	95	61	37	292	832
경기도	408,526	13,836	8,190	4,185	6,061	35,277
강원도	18,261	167	118	110	640	4,253
충청북도	39,537	847	582	356	1,129	6,271
충청남도	68,234	1,685	1,070	603	1,851	10,568
전라북도	31,347	373	238	120	1,299	7,153
전라남도	33,042	217	166	135	707	5,034
경상북도	56,969	772	523	306	2,571	10,672
경상남도	74,304	1,247	890	547	972	8,251
제주특별자치도	24,841	614	683	625	914	3,636

자료 : 법무부, 「출입국지침체류외국인통계」(2018.12.31.)

법무부에서 중도입국 자녀의 수를 방문동거, 거주자격, 영주자격을 3,938명으로 발표하였다.

[표 3-4]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 자격별 현황

계	방문동거자격(F-1-52) ²⁾	거주자격(F-2-2) ³⁾	영주자격(F-5-3)
3,938	1,901	1,871	166

자료: 법무부 보도자료(2019. 10월 현재, 단위: 명)

[표 3-5]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 국적별 연령별 현황

나이	계	0~5세	6~10세	11~15세	16~18세
계	3,938	517	1,049	1,357	1,015
베 트 남	1,193	131	272	438	352
중 국	1,190	91	288	467	344
한국계 중국인	435	40	125	167	103
필 리 핀	299	94	110	62	33
몽 골	173	12	56	44	61
태 국	147	42	42	38	25
우즈베키스탄	89	13	31	28	17
러 시 아	67	16	19	20	12
일 본	57	10	21	17	9
미 국	52	12	11	17	12
타 이 완	32	4	14	11	3
캄 보 디 아	25	7	8	6	4
키 르 기 즈	23	6	7	3	7
인도네시아	17	3	5	4	5
파 키 스 탄	12	2	2	3	5
캐 나 다	11	2	6	1	2
카자흐스탄	10	1	5	3	1
기 타	106	31	27	28	20

자료: 법무부 보도자료(2019. 11. 25, 2019. 10월 현재, 단위: 명)

²⁾ 방문동거자격(F-1-52) :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로서 한국인 배우자에 의해 입양되지 않은 미성년 외국인 자녀

³⁾ 거주자격(F-2-2) :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로서 한국인 배우자에 의해 입양된 미성년 외국인 자녀

2019년 10월 기준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에서 태어나 국내 입국한 중도입국 자녀의 수는 3,938명(귀화자 6,871명 제외)이나, 이들 중 몇 명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는 교육부·여가부 등에서도 파악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외국인등록 사항)를 개정하여 외국인등록 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 ‘학교명’을 추가하고 있다.

3) 행정안전부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행정안전부(2018) 통계에 따르면 전국 외국인주민의 자녀의 수가 237,506명으로 나타나며, 이 중 귀화하거나 외국국적인 배우자의 자녀가 11,36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6] 행정안전부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시군구별(1)	합계			구한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합계	237,506	121,278	116,228	11,361	5,441	5,920	226,145	115,837	110,308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2018.11.01.)

신윤정(2018)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외 출생 다문화가족의 자녀(중도입국 아동·청소년)를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15,997명(8.1%)으로 추정하였다. 이 추정은 결혼이민자의 자녀로 외국에서 성장하다 입국한 자녀의 수이다.

[표 3-7] 국내 거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유형별 규정 추정

유형	규모(비중,%)
국내거주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전체	197,777 (100.0)
국내에 거주하는 국내 출생 다문화가족의 자녀	174,614(88.3)
국내에 거주하는 국외 출생 다문화가족의 자녀(중도입국 아동·청소년)	15,997 (8.1)
기타	7,166 (3.6)

자료: 통계청(2015),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 마이크로데이터 원자료 분석

각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통계는 결혼이민자의 자녀로서 결혼이민자가 결혼 전 본국에서 출생하여 자란 자녀로 한정하여 통계 집계를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에 입학한 중도입국청소년을 통계로 잡고 있으며 외국인가가정의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통계는 따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통계에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중도입국청소년의 수는 포함되지 않으며 연령도 19세 이상인 경우도 학년을 낮추어 입학한 경우들이 많아 연령에 따른 통계가 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자녀를 중도입국청소년으로 집계하고 있어 중국 동포의 자녀, 난민의 자녀, 유학생의 자녀를 따로 통계할 수 없으며, 집계하는 연령도 5년 단위로 나누어서 공개되어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자녀의 통계에서 부모가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통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으므로 중도입국청소년을 결혼이민자의 자녀로 한정하여 통계 집계를 하고 있다.

[표 3-8] 고양시 각 구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자료	법무부 (2018.12.31.)	행정안전부 (2018.11.1.)	교육부 (2019.04.01. 기준)
중도입국 자녀 규모 추산	3,938명	11,361명	29,156명 (중도입국:8,697명 외국인가정 자녀: 20,459명)
규모 추산에 포함된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 -19세 이하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입양절차 된 경우)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가정 초·중고 학생(연령무관)
규모 추산에서 제외된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외국국적 동포 자녀, 그 외 외국인 부모의 자녀	외국인가정의 자녀	연령 집계 불가

제2절 광역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행정안전부(2018)에 따르면 경기도의 중도입국청소년 수가 3,96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결혼이민자가 귀화하거나 외국국적인 자녀의 통계이다.

[표 3-9] 행정안전부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합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합계	237,506	121,278	116,228	11,361	5,441	5,920	226,145	115,837	110,308
서울특별시	32,930	16,564	16,366	2,922	1,423	1,499	30,008	15,141	14,867
부산광역시	10,772	5,492	5,280	379	184	195	10,393	5,308	5,085
대구광역시	7,985	3,969	4,016	270	129	141	7,715	3,840	3,875
인천광역시	14,643	7,502	7,141	972	477	495	13,671	7,025	6,646
광주광역시	5,978	3,166	2,812	155	79	76	5,823	3,087	2,736
대전광역시	5,522	2,819	2,703	157	82	75	5,365	2,737	2,628
울산광역시	5,197	2,669	2,528	148	68	80	5,049	2,601	2,448
세종특별자치 시	1,154	597	557	46	18	28	1,108	579	529
경기도	61,476	31,442	30,034	3,964	1,904	2,060	57,512	29,538	27,974
강원도	7,121	3,668	3,453	155	75	80	6,966	3,593	3,373
충청북도	8,963	4,550	4,413	269	123	146	8,694	4,427	4,267
충청남도	13,868	7,029	6,839	444	207	237	13,424	6,822	6,602
전라북도	11,864	6,120	5,744	282	112	170	11,582	6,008	5,574
전라남도	13,815	7,119	6,696	279	134	145	13,536	6,985	6,551
경상북도	14,491	7,378	7,113	323	146	177	14,168	7,232	6,936
경상남도	17,723	9,109	8,614	449	197	252	17,274	8,912	8,362
제주특별자치 도	4,004	2,085	1,919	147	83	64	3,857	2,002	1,855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2018.11.01.)

제3절 고양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1) 고양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고양시의 중도입국청소년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에는 3,312명, 2017년에는 3,412명, 2018년에는 3,964명으로 그 수가 늘어 나고 있다. 국적 및 외국국적의 자녀 즉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청소년으로 한정적이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0] 고양시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2016-2018)

(단위: 명)

행정구역(시군구)별	소계		소계	소계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합계	계					
2016	합계	계	52,446	2,777	1,290	737	750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	계	3,312	146	59	45	42
	국내출생 자녀	계	49,134	2,631	1,231	692	708
2017	합계	계	56,584	2,958	1,376	770	812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	계	3,432	143	62	39	42
	국내출생 자녀	계	53,152	2,815	1,314	731	770
2018	합계	계	61,476	3,188	1,489	857	842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	계	3,964	160	70	43	47
	국내출생 자녀	계	57,512	3,028	1,419	814	795

자료: 국가통계포털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2018.11.01.)

[표 3-11] 고양시 각 구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합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경기도	소계	61,476	31,442	30,034	3,964	1,904	2,060	57,512	29,538	27,974
고양시	소계	3,188	1,653	1,535	160	85	75	3,028	1,568	1,460
	덕양구	1,489	781	708	70	33	37	1,419	748	671
	일산동구	857	429	428	43	26	17	814	403	411
	일산서구	842	443	399	47	26	21	795	417	378

자료: 국가통계포털시스템(2018)

2) 고양시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현황

고양시 거주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정책들이 각 부처별로 실시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 특별학급, 한국어학급, 상호문화 이해학교, 다문화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비상시적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한국어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특별학급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조기 적응과 맞춤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 밀집지역 초·중학교에 개설된 특별학급, 정규 교사 지원하고, 한국어학급은 학교 밖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공교육 진입을 위해 경기도 내 초, 중학교에 개설된 한국어집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등은 교육부형으로 학교내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등은 경기도형으로 학적이 없는 학교 밖 다문화 학생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실은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어능력과 한국문화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강사가 지원되는 1:1 맞춤형 한국어집중 교육프로그램이다.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 운영은 중·고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중 한국어 및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탁교육기관이다.

UN아동협약에 따라 모든 학령기의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공교육에 진입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교에 편입하지 않은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표 3-12] 고양시교육지원청 다문화사업 학교 현황

다문화 사업별	학교명	
	초등	중고등
다문화 특별학급	금계초, 일산초	
한국어학급 초 중(경기도형 다문화 예비학교)	금계초, 일산초	백신중(2)
상호문화 이해학교	성사초	
다민교육기관		고양시다문화 대안학교

자료: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사업교 현황(2020, 2020년 3월 현재)

법무부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조기적응을 돕기 위해 3시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내용은 학교 교육제도 소개, 청소년 문화·복지시설 안내, 필수 생활정보, 기초 법·질서와 문화,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중도입국청소년의 의무교육은 아니며 대상도 결혼이민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된 미성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외국인가정의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자녀의 경우 등 다수의 중도입국청소년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고양시에는 법무부로부터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1곳이다.

여성가족부는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이주배경 무지개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주배경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는 '레인보우스쿨'을 각 지역별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양시에서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레인보우스쿨에 참여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은 국제결혼의 자녀, 외국인가정의 자녀, 난민의 자녀, 유학생의 자녀 그리고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⁴⁾를 포함하고 있다.

[표 3-13] 고양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현황

사업명	대상	운영기관
조기적응프로그램	- 중도입국 자녀 결혼이민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 국내에 입국·체류하게 된 미성년의 외국인(F-1-52, F-2-2)	법무부 지정:고양이민자통합센터
레인보우스쿨	-중도입국청소년(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포함)	여성가족부 (이주배경 무지개청소년센터) 위탁:고양시중도입국청소년센터

경기도는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20조(지원사업)에 중도입국 자녀 정규학교 진입 징검다리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 중도입국청소년 중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군 직접 운영 또는 관련 단체 사업보조·위탁 운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등 학교생활 준비에 필요한 수학, 역사, 컴퓨터 등 필요한 과목으로 편성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은 8개월 이상, 반편성은 10~20명 내외로 실정에 맞게 운영하게 되어 있다.

고양시도 2013년부터 한국어교육, 심리상담, 미술활동, 음악활동, 문화활동을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사업을 2017년까지 지원해 왔다. 하지만 2018년부터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북한이탈주민이 탈출과정에서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표 3-14] 고양시 중도입국청소년 한국사회 적응지원 현황

사업분야 (사업명)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2013	총 8명 -한국어, 문화체험, 예체능멘토링
2014	총 51명 한국어교육: 12명, 미술교육: 10명, 방송댄스: 10명, 문화체험: 19명
2015	총 58명 한국어교육: 14명, 심리상담: 11명, 음악활동: 11명, 문화체험: 22명
2016	총 75명 한국어교육: 18명, 집단미술치료: 16명, 창의활동: 16명, 문화체험: 25명
2017	총 67명 한국어교육: 20명, 집단상담: 19명, 체육활동: 19명, 진로탐색교육: 9명
2018	- 없음

자료: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전성훈, 2019:168-173)

제4절 소 결

중도입국청소년의 현황에서 살펴 보았듯이 전국적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양시의 경우도 외국인주민자녀 현황을 통해서도 중도입국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외국국적의 동포의 자녀 등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신윤정(2018)의 연구에서도 보았듯이 중도입국청소년의 수를 추측할 뿐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 중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현황만 정확히 집계될 뿐 그 외의 외국인가정의 중도입국청소년의 현황 집계는 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정책을 실시하는 각 부처별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다르며,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범위도 달라 정책에 시행에 있어서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

둘째,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법 적용이 한정되어 정책지원이 선별적으로 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역시 법 적용 대상을 국민의 배우자, 국적 취득자 및 그 자녀로 한정함에 따라 중도입국 이동을 비롯한 그의 합법적 체류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난민, 불법/미등록 체류자 등의 자녀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한국행정학회, 2018a: 11).

셋째,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고양시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의 다문화사업과 현황에서 살펴보듯이 공교육 위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고양시 지자체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고양시의 중도입국청소년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4장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통합 분석

제1절 조사 설계

제2절 연구 대상

제3절 심층면접 분석 결과

제1절 조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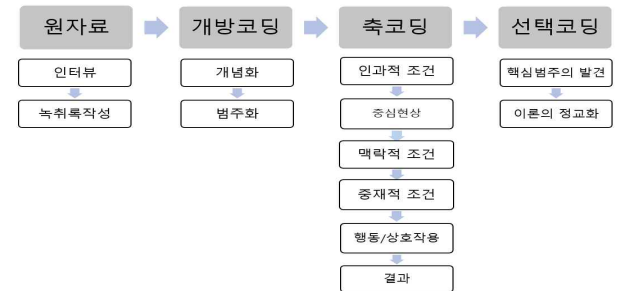
1. 분석 체계

1) 문헌연구

중도입국청소년의 개념 및 범위, 사회통합 정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모델의 이론적 근거 등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취합하여 정리한다.

2) 연구분석: 근거이론에 바탕을 둔 심층면접

표본추출은 의도적 표본추출(purposeful sampling) 방식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한다(Creswell, 2013).



본 연구 방법으로 근거이론의 페러다임 모형을 채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특정 주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과정과 행동, 상호작용에 집중하면서 면담자료에서 핵심 내용으로 추출된 범주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조직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제의 맥락을 페러다임 모형을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이론은 연구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에서 근거한 이론을 의미하여 이러한 근거이론은 자료에서 도출된 것이므로 현실을 이해하는 직관력을 제공하며 이해를 강화하고 행동을 하는데 의미있는 지침을 제공해주는 경향이 있다(Strauss&Corbin, 1998).

근거이론의 연구과정은 자료수집, 이론적 표본추출¹⁾, 지속적 비교방법²⁾, 코딩³⁾, 분류, 핵심범주⁴⁾ 발견, 연구의 평가 순이다.

코딩과정은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으로 구분하다. 개방코딩은 개념을 밝히고 속성과 차원을 근거자료에서 발견하는 과정이고 축 코딩은 범주와 범주를 연결시키는 과정이며 선택코딩은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정교화 하는 과정이다.

근거이론이라는 연구방법을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통합과정에서 겪는 경험의 핵심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같은 검토 작업을 통해 참여자들이 사회통합 과정에서 겪은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다.

문헌 연구와 사회통합이론을 근거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징을 반영한 사회통합유형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최종적인 자료수집을 위해 심층인터뷰 녹취록과 언론보도자료 및 구술내용, 현장 노트 등을 사용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앞서 도출된 질문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연구 대상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중도입국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였다.

¹⁾ 이론적 표본추출은 전개되는 이론에 대해 입증된 이론적 관련성을 가진 개념들을 근거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으로 연구자가 다음에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그들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적 근거를 결정하는 것이다(신경림 외, 2004).

²⁾ 지속적인 비교방법은 연구자가 사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범주나 개념의 기본적인 속성을 정의하는 것이다(김주현, 2006).

³⁾ 코딩은 자료로부터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조직하는 일련의 과정으로(김영천, 장상원, 2016)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⁴⁾ 핵심범주는 자료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여러 자료(범주, 속성, 단계)를 서로 연결시키며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료에서 변화를 설명할 수 있고 핵심범주는 공식이론이나 일반이론에 적용할 수 있다(신경림 외, 2004).

인터뷰 일시는 연구 참여자가 가능한 날짜와 시간으로 확정하였고 장소 또한 연구 참여자가 편하게 느끼는 지역 및 공간으로 사전에 조율하였다.

인터뷰는 최소 1시간에서 최대 2시간까지 소요되었다. 인터뷰 종료 후에는 반드시 인터뷰 주요 발인 내용과, 참여자의 태도 및 행동을 기록하였고 이를 결과분석에 활용하였다. 모든 녹음파일은 연구자가 직접 컴퓨터로 녹취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연구 참여자의 발화내용 중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을 중심으로 SNS를 통해 확인질문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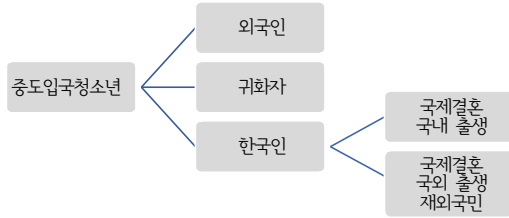
2. 심층면접 조사체계

이민자사회통합 모델을 근거하여 질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1] 질문지 주요 내용

상위 영역	하위영역	내용	
통합의 토대	권리와 시민권	시민권, 서비스와 권리의 보장과 접근성에 대한 형평성, 법적, 복지혜택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축진 요소	언어문화적 지식	한국의 언어, 관습, 문화, 법과 제도, 생활 관련 지식, 신문, 언론매체 이해도,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	
	안전과 안정감	차별 정도와 인지도, 기회평등 인식, 치안과 생활 불안감, 지역만족도	
사회적 관계	사회적 가교	한국사회 조직 및 단체 참여도, 사회적 지원망	
	사회적 결속	이민자 관련 문화행사, 학교교육 참여도	
	사회적 연계	정부 및 지원 조직 및 단체와의 연계망 및 지원 만족도	
표상과 수단	체계 통합	고용	경제활동 참여, 소득, 고용 안정성, 생활안정 수준
		주거	주거 형태,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 안정성
		교육	초중고 이상, 학령기전 교육참여 수준, 대학입학 현황, 학교만족도, 사교육참여도
	가치 통합	보건	병원치료 여부, 이용 의료기관 형태, 의료 충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건강행위, 주관적 건강상태
		소속감	지역사회 소속감, 국민소속감, 학교 소속감, 회사 소속감
		신뢰감	등등하고 역량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정받는 정도
다문화 수용성	중도입국청소년의 출신 국가의 전통문화와 정체성이 인정받는 정도		

제2절 연구 대상



중도입국청소년을 국적에 따라 그 유형을 외국인, 귀화자, 한국인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외국인에는 '결혼이민자 등'의 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중도입국 아동청소년),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재한외국인 아동청소년, 외국 국적 재외아동청소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난민 지위 인정자 또는 난민 지위 인정 신청자 아동청소년, 국제결혼 가정 중 부모 또는 아동·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외국 국적을 유지할 경우 그러나 부모 또는 아동·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외국 국적을 유지할 경우 등이 이 유형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이주 배경 청소년'에만 해당된다.

둘째, 귀화자는 '다문화가족' 부모는 그 자녀를 입양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자녀가 미성년이면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 제1항), 성년이면 '간이귀화(국적법 제7조 제1항)'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은 대한민국 국민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다. 국민인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뿐만 아니라 「영유아보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교육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외국 국적을 지닌 부 또는 모의 출신국 법률에 따라 그 국적을 취득하여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가 될 수 있으며, 만 22세가 되기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는 조건하에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국적법 제12조).

셋째, 한국인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을 정의하면서 부모 중 한 쪽이 출생 또는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제2조 제1호). '다문화가족'의 부모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부 또는 모는 '결혼이민자'에 해당되는데(제2조 제2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제2조 제3호)으로 정의하였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출생한 재외국민의 자녀로서 이들은 다문화가족 범주에 포함된다.

이들의 신분은 외국인으로 생활하다 귀화자가 되기도 하고,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인이 되기도 하는 등 유동성을 보인다.

제3절 심층면접 분석 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5명으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는 연령, 한국거주기간, 국가, 중도입국청소년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중도입국청소년의 연령이 아닌 이민 온 연령을 제시하였고, 업종도 구체적인 세부 종목이나 사업체명을 함께 제시하지 않아 심층인터뷰 대상자의 표만으로는 누가 누구지 식별할 수 없도록 민감정보의 노출을 최소화 하였다.

【표 4-2】 심층인터뷰 대상자

대상자	연령	한국 거주기간	성별	국가	중도입국청소년 유형
사례1	16세	6년	남	중국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의 자녀)
사례2	17세	4년	여	베트남	귀화자 (결혼이민자의 자녀)
사례3	15세	5년	여	인도네시아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자녀)
사례4	17세	6년	여	중국	외국인 (결혼이민자 자녀)
사례5	17세	5년	여	일본	한국인 (재외국민, 복수국적)

2. 개방코딩: 근거자료의 범주화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을 기초로 자료에서 나타난 개념을 제시하고 비슷한 개념을 묶고 추상화하여 범주화하였으며 이 범주의 속성 및 차원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28개의 개념과 28개의 하위범주, 1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표 4-3】 근거자료의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공부를 위해 한국 이주, 새로운 경험에 대한 도전	준비없이 한국 이주	설렘으로 한국행	인과적 조건
부모의 부재, 일찍 부모와 헤어짐	그리움		
한류로 인한 호기심, 준비 없는 한국행, 막막함, 답답함	한국에서의 시작	두려움으로 한국 생활 시작하여 한국 현실에 실망	
한국 학교에 대한 두려움	학교생활	위축되고 우울한 생활	
일반 학교에서 경험 출발선 위에 혼자 남겨진 느낌, 스타트 지점만 걷고 있는 느낌	위축, 뒤처짐, 발전 없는 삶		
우울함, 음식 및 문화차이에서 오는 심리적 힘들	향수병		
미래에 대한 희망, 대학원 진학	한국에서 미래 찾기	한국에서 희망을 찾다	중심현상
병원에 가면 잘 알아듣지 못하여 답답함	공공기관 외국어표시 부족	공공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배려 부족	맥락적 조건
미래 결정하지 못함, 진로에 대한 탐색의 기회 없음	자신의 결정이 아닌 타인이 결정하는 삶	내 인생의 주인 없는 삶	맥락적 조건
대학 갈 때 대안학교 선생님의 결정으로 학과 결정	내 인생의 결정		
계획할 수 없는 미래국적, 체류문제	한국 체류 문제		
잘못된 정보를 인한 노력의 결실을 맺	체류 관련 잘못된	정보의 부재	맥락적 조건

지 못한 허무함, 원망스러움	정보로 인한 노력이 소용없게 됨		
학교에 대한 정보 부모님이 준비	부모님의 도움		
지인을 통한 정보	공공기관 아닌 지인을 통해 정보 습득		
대안학교의 도움을 많이 받음	대안학교 도움	유연한 교육과정	중재적 조건
대안학교 한국어사용 기회가 적음, 일 자리 체현, 활동이 많아 좋았음	대안학교 긍정과 부정		
대안학교로 탈출, 비숙한 처지의 다른 화대안학교에서 경쟁	교육과정, 소수인원		
친구들, 선생님들과의 대화가 한국어 능력 향상	한국어능력 촉진요소	가장 높은 산 한국어	행동/상호 작용
같은 의지로 공부	좌절 한국어교육 어려움		
단어 하나하나 외움, 한국 친구랑 이야기하기, 한국 영화시청	한국어 능력 향상		
친한 친구로 인한 위로	친구가 만병통치약	친구와 대안학교	행동/상호 작용
알난고 선생님님이 대안학교 이야기해줌.	학교생활 무게를 덜어 줌	차별 경험	행동/ 상호 작용
모르는 부분 질문했을 때 대답하지 않았을 때, 수업 시간에 자국의 역사와 나쁜 감정을 들었을 때	차별경험		
친구관계에서는 차별 받지 않음	친구관계 차별		
중국 문화, 음식 배운 경험 있음. 본국 역사 잘 알지 못함. 언어도 잊어 버리고 있음	본국 문화 교육 부재	본국의 언어와 문화 상실	행동/상호 작용
편의점, 중국어과외, 번역지막, 제조업	경제적 독립,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	경제적 독립을 위한 아르바이트	결과
혼자살고 있음, 월세	한국에서도 부모와 분리 거주		
채류 문제해결 노력 한국에서 직업 구함	한국 장기체류 방법 찾기		

1) 설렘으로 한국행

어릴 적 부모와 헤어지고 부모와의 재회를 꿈꾸며 '설렘을 안고 한국으로 이주'. 하지만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으로 한국에서의 적응하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다.

“엄마와는 5년 전에 헤어지고 외가댁에서 살았어요. 엄마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사례2)

“부모님과 한 살 때부터 떨어져 살았어요. 두 분 다 중국국적 동포예요. 그래서 중학교 시험 끝나고 고민했어요. 한국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께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때 공부에 대해서는 관심 없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사례1)

2) 두려움으로 한국생활 시작하여 한국 현실에 실망

막상 한국에 도착하니 본국에서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다. TV를 통해 접했던 한국의 이미지와 다르고, 한국에서도 혼자 지내는 시간이 여전히 많았다.

본국에서 한국으로의 입국을 위해 한국어를 배운 경험이 없었으며 한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입국하였다. 부모님은 주변 지인들을 통해 교육 관련 기관을 알아서 교육기관에 다니게 되었다. 집에서 혼자 머무는 동안은 일주일에서 6개월까지 다양했다. 외국인가정보다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학교 편입이 더 빠르게 나타났다.

“한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한국에 왔어요. 막막했어요. 한국어도 전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하고는 일주일 정도 같이 살고 그 다음부터는 혼자 살았어요.” (사례3)

3) 위축되고 우울한 생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다. 부모님의 정보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으며 정보가 없는 부모의 경우는 중도입국청소년을 보살피는데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학령기로 한국 학교로의 편입이 중요하였다. 외국인 부모의 경우 본국과의 다른 학교시스템과 편입학을 위한 서류가 무엇인지 모르며 서류가 복잡하여 준비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인 경우 정확한 정보로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지원시스템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일반 학교에 입학해서 두려움을 느꼈다. 한국어로 수업이 진행되어 알아들을 수 없어 '두려움' '막막함'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항상 긴장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일본은 4월부터 새학기가 시작되어요. 제가 3월에 한국에 도착하니 이미 학기는 시작되었어요. 일본에서의 서류가 미비하여 일본으로 다시 가서 중3으로 입학하였고 한국으로 와서 3학년 2학기에 편입하여 생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어가 부족하여 수업시간에 알아듣기 힘들었어요.”(사례5)

“2014년 9월 1일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은 2015년 3월 고등학교 입학할 수 있었고, 학교 편입을 하려면 서류들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중국에 친척이 있어서 서류 준비는 서류 준비를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입학 때까지 한국어를 배우면서 6개월 정도 보냈어요. 한국어만 열심히 배우고 학교에 들어갔지만 수업시간에 알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배웠던 것도 다르고 한국어도 너무 어려웠어요. 수업시간이 두려웠어요. 저는 그래도 중국동포라서 한국어를 따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집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했었는데도 한국어로 수업 받게 긴장되었어요.”(사례1)

“한국에서 적응도 힘들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 음식이 많이 생각났어요. 고향

과 환경이 다르니 계속 피부병이 생겨 약을 먹어야 해요. 음식도 달라서 한 달 정도 배가 아팠어요. 고향을 생각하면 더 우울했었어요.”(사례2)

4) 한국에서 희망을 찾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생활을 지내고 대학생으로 한국생활을 하고 있다. 아직도 해결해 나아갈 문제들은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한국에서의 미래를 꿈꾸며 국적취득, 장기체류를 위해 영주자격 취득을 희망하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직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학교 들어갔을 때 가장 행복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축하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아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장학금 탈 수 있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업도 갖고 잘 살고 싶어요.”(사례2)

“대학 들어가서 과제하는데 힘들지만 그래도 재미있어요. 지금은 과제를 할 때 한국 학생에 뒤지지 않게 하고 있어요.”(사례1)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관광가이드를 하고 싶어요. 제가 사용하는 본국의 언어가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돈도 많이 벌고 싶어요. 엄마 고생하지 않게 하고 싶어요.”(사례3)

5) 공공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배려 부족

병원 등 공공기관에서 이용 설명이 한국어로 되어 있지 않아서 혼자서는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언어를 알 수 없어서 병원에 가기 힘들었어요.”(사례5)

6) 진로탐색의 기회 없이 미래 준비

담임선생님 권유하여 대안학교에 위탁을 가게 되었으며, 대학교 학과 선택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지 못했고 대안학교 선생님에 의존하여 선택하였다고 진술했다. 자신의 진로탐색의 시간을 가지 못한 채 그냥 방관하듯 대학교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대학교 원서를 6개 썼는데 다 붙었어요. 지금 다니는 대학교도 대안학교 선생님이 입학할 써 줬어요. 학과도 모두 선생님이 결정해서 써 주셨어요. oo학과인데 이 과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결정해서 원서 넣어 주셨고 붙어서 대학 다니고 있어요.”(사례1)

7) 한국생활 적응 정보의 부족

학교 편입학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안내 받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본국에서 가져와야 할 서류 없이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그 후 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다. 편입학에 대한 학교 관련 정보들은 부모가 지인이나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을 하는 민간기관이나 한국어강사를 통해 안내받고 있었다. 그래서 학교 편입학을 각기 다른 경로를 진입하며, 준비기간도 제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체류 문제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보로 인해 여러 시도를 하였으나 결국은 대학교 입학으로 체류자격을 바꾼 경우도 있으며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위해 대학교 입학을 선택했다고 진술했다.

“아버지가 다 알아보시고 한국 학교 가기 전에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서 다문화예비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 집에 있었고 바로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어요.”(사례2)

“부모님이 대안학교를 지인을 통해 아셔서 바로 대안학교를 찾아 갔어요. 거기

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학교에 가야 한다고 안내 받았어요. 학교에 들어가려면 중국에서 가져와야 하는 서류가 있다고 들었고 부모님이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부탁하여 바로 준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학기가 달라서 바로 고등학교에 들어 갈 수 없었어요.”(사례1)

8) 학교적응 생활

일반학교에서 수업이 한국어로 진행되니까 수업들어가기 너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고 수업하는 학생들도 학년이 올라가면 달라져서 다시 적응해 가야 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학교에 어렵게 들어갔지만 수업을 알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역사와 국어는 알아듣기 더욱 힘들었어요.”(사례2)

“2학년 때 중국어를 배웠는데 그 때 가장 좋았어요. 그 때 점수가 가장 좋아서 뿌듯했어요.”(사례1)

9) 가장 높은 산 한국어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일상 한국어뿐만 아니라 학습 한국어를 배워야 했지만 학령기의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은 많지 않았다. 일상 한국어는 성인 외국인과 배울 수 있었지만 학습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없었다. 한국 학교로 편입해서도 한국어교육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과 한국어로 수업을 들어야 했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하위권의 성적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어가 가장 많이 향상되는 것은 한국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며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선생님들과 대화도 많이 했어요. 한국어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사례1)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어휘 열심히 외우고 문법도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한국어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면 동기부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한국어를 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사례4)

“한국 드라마 많이 봤어요.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환경 자체를 일본어를 사용할 수 없게 했어요. 그리고 한국어 문법 공부 열심히 했어요.”(사례5)

10) 친구와 대인학교

일반학교에서 편입학하여 어려울 때 가장 많이 도움을 주었던 것이 바로 친구였다고 진술했다. 먼저 말을 걸어주고 다가와서 도움을 주었으며 다문화대안학교로 위탁가서 같은 처지의 친구들을 만나서 격려가 되었다고 진술했다.

“학교에 처음 들어 갔을 때 그래도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도와 주었어요. 그래도 친구들 때문에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사례2)

“대안학교로 위탁 갔을 때 좋았어요. 같은 처지의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친절하게 잘해 주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했어요.”(사례1)

11) 차별 경험

일반 학교에서 차별은 느끼지 못했지만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웠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시선과 편견을 경험했다고 진술했다.

“중학교 수업 시간에 국사 선생님이 일본에 대해 욕을 하시면서 일본에 대해 말했어요. 하지만 전 일본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반에 일본이 있다고 말했어요. 순간 교실은 웃음 바다가 되었어요. 이번에 불매 운동

때도 일본어를 쓰지 않고...하여간 일본과 한국 간의 미묘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불편해요.”(사례5)

12) 본국의 언어와 문화 상실

본국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있으며,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져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하기 힘들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한국에 와서 본국에 관한 역사 등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베트남에 대한 것들을 잊었어요. 한국에서 사는 게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베트남에 가면 힘들어요.”(사례2)

“가장 어려운 과목이 일본역사예요. 일본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일본어 역사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일본 역사는 세계사적으로만 배웠어요.”(사례5)

13) 경제적 독립을 위한 아르바이트

중도입국청소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통역, 마트, 커피숍, 번역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자 하였다.

“인력사무소에 가서 건설 현장에 가서 일도 하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도 했어요. 한국어가 잘 되지 않으니까 단순 반복적인 일을 많이 했어요. 돈 벌어서 부모님께 용돈 받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서 좋아요.”(사례1)

“아르바이트 해서 학비에도 보태고 지금 학교 다니는 동안 용돈도 써야 해요.”(사례2)

14)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중도입국청소년 중에서 자신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제결혼 자녀 중 재외국민 자녀의 경우는 정체성에서 어느 곳에서든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받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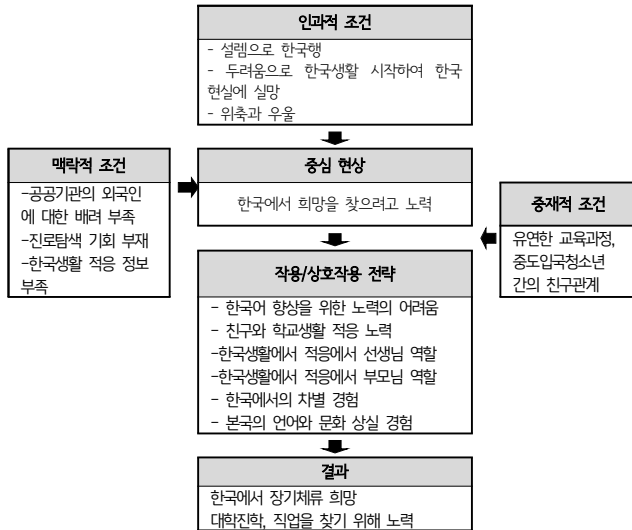
있다고 진술했다.

“꼭 어느 나라 사람인지 나누어야 해요? 저는 일본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고 한국에 와서는 일본 사람이라고 해요. 저는 그냥 제예요.”(사례5)

“저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중국 사람이요. 국적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다 중국 사람이예요.” (사례1)

3. 축코딩

1)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범주 구조 분석



(1) 인과적 조건

어릴 적 부모와 헤어지고 부모와의 재회를 꿈꾸며 ‘설렘을 안고 한국으로 이주’. 하지만 본국에서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다. TV를 통해 접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다르고, 한국에서도 혼자 지내는 시간들은 여전히 많았다.

하지만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으로 한국에서의 적응하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다. 본국에서 한국으로의 입국을 위해 한국어를 배운 경험이 없었으며 한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입국하였다.

부모님은 주변 지인들을 통해 교육 관련 기관을 알아서 교육기관에 다니게 되었다. 집에서 혼자 머무는 동안은 일주일에서 6개월까지 다양했다.

(2) 중심현상

한국에서 영주 및 국적취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 대부분 학생비자와 F1비자 문제 등 체류 문제들로 불안정한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한국생활을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한국에서 영주 및 국적취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직업도 알아보며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3) 맥락적 조건

한국생활을 시작하며 학교 편입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을 통해 제공받지 못 하였으며, 공공기관에서도 언어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선택 할 수 없어 한국생활 적응이 늦어 질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진로를 선택 할 때도 진로를 탐색해 본적이 없이 선생님 등 주변의 결정에 의해 수동적으로 따라가야 했다고 진술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시간도 허비하고 어려운 고비들을 맞이했다고 진술했다.

(4) 중재적 조건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들이 한국생활의 적응을 도왔으며 친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한국생활 적응 스트레스를 낮추어 주었다. 한국학교에서 3년 지내는 동안 한국 친구들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일반학교에서 선생님의 관심이 무엇보다 학교생활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대안학교로 위탁으로 인해 교육과정이 유연하여 학업을 계속 이어 갈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5) 작용/상호작용 전략

한국에서 생활하며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어 사용의 문제였다. 일상 생활 뿐 아니라 수업, 정보 등 모든 문제에서 가장 우선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사례자들은 한국어능력 시험 5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3급 이상의 한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 동기화 하여 열심히 공부하였으며 한국어 드라마, 한국 친구와 이야기하기, 한국 선생님과의 대화 등을 시도하며 한국어 능력을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중에서도 친구들과의 대화가 한국어능력을 가장 향상시켰다고 진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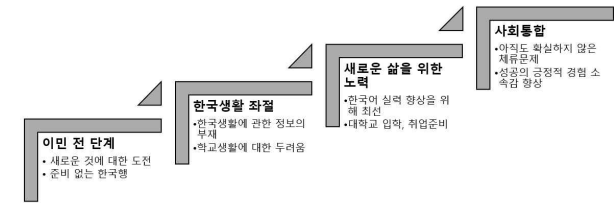
한국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이라는 시선과 아르바이트 할 때도 한국어를 잘 못할 거라는 생각으로 설거지 등 단순한 일만 시킨다고 했다. 학교에서의 차별보다는 아르바이트 할 때 차별 경험이 더 많았다. 그래도 한국 친구들의 도움과 대안학교에서의 유연한 교육과정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견디고 적응해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 본국의 음식, 냄새, 가족 등 그리워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지만 그래도 친구와 선생님들의 응원과 격려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본국의 언어를 점점 잊어버리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쉽지 않았다. 한국에 와서 본국의 문화를 배울 기회가 없어서 본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다.

(6) 결과

지금도 체류 문제로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을 안고 살고 있다.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다. 대학을 진학하여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해 지고,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과정분석



(1) 한국으로 이민 전 단계

오랫동안 부모님과 헤어져 살았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척집에서 살았으며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부모와의 재회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도전과 설렘, 희망을 가지고 한국으로 입국했다.

하지만 학교 편입에 대한 준비, 준비서류 등의 사전준비 없이 한국에 입국했다.

(2) 한국생활 좌절 단계

한국에 들어와서 부모님과의 재회는 짧고 혼자 생활과 부모님의 생활이 바빠서 혼자 시간을 보냈지만 한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부모님 역시 외국인인 경우 지인들로부터 민간기관의 한국어 교육기관에 도움

으로 정보들을 얻고 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서 한국어로 이주하였으나 처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고 답답해 하였다. 학교 편입도 한국어능력의 문제 등으로 어렵고 서류준비의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학교로의 진입이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우울과 위축의 경험하게 되었다.

(3) 새로운 삶을 위해 노력 단계

한국어 단어를 외우고,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며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최선을 다했다. 한국어 실력이 늘고 한국 학교에 입학하며 고등학교, 대학교를 입학하며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한국에서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대학교를 졸업과 취업을 하여 돈도 많이 벌고 싶다고 했다.

(4) 한국에서의 사회통합

한국에 영주나 귀화로 장기체류하며 살고 싶지만 신분상의 지위 때문에 장래를 확실히 정하지 못하였다. 한국에서 체류를 위해 대학진학이 절실하기도 하였고 지금의 유학 체류 자격이 한국에서의 체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중도입국청소년은 부모의 이주로 인해 한국에 들어왔으나 한국에서 정착하여 생활하기에는 힘들어하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대학 입학 등의 성공경험은 중도입국청소년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정서적 소속감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

4. 선택코딩

1) 이야기 윤곽 전개

어릴 적 부모와 헤어지고 부모와의 재회를 꿈꾸며 '실렘을 안고 한국어로 이주'. 하지만 본국에서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다. TV를 통해 접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다르고, 한국에서도 혼자 지내는 시간들은 여전히 많았다. 하지만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으로 한국에서의 적응하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다. 본국에서 한국어로의 입국을 위해 한국어를 배운 경험이 없었으며 한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입국하였다.

부모님은 주변 지인들을 통해 교육 관련 기관을 알아서 교육기관에 다니게 되었다. 집에서 혼자 머무는 동안은 일주일에서 6개월까지 다양했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 대부분 학생비자와 F1비자 문제 등 체류 문제들로 불안정한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한국생활을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서고 직업도 알아보며 삶을 개척해 나아가고 있었다.

한국생활을 시작하며 학교 편입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을 통해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공공기관에서도 언어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선택할 수 없어 한국생활 적응이 늦어 질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진로를 선택할 때도 진로를 탐색해 본적이 없이 선생님 등 주변의 결정에 의해 수동적으로 따라 가야 했다고 진술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시간도 허비하고 어려운 고비들을 맞이했다고 진술했다.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들이 한국생활의 적응을 도왔으며 친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한국생활 적응스트레스를 낮추어 주었다. 일반학교에서 선생님의 관심이 무엇보다 학교생활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대안학교로 위탁으로 인해 교육과정이 유연하여 학업을 계속 이어 갈 수 있었다. 하지만 대안학교에서 한국 친구들과의 교류가 없어 아쉬웠다고 진술했다. 한국에서 생활하며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어 사용의 문제였다. 일상생활 뿐 아니라 수업, 정보 등 모든 문제에서 가장 우선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사례자들은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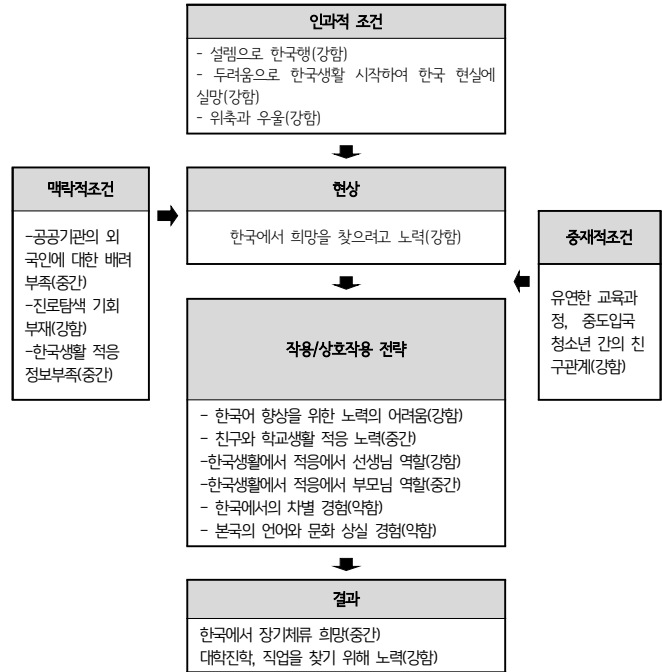
어능력 시험 5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3급 이상의 한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 동기화 하여 열심히 공부하였으며 한국어 드라마, 한국 친구와 이야기 하기, 한국 선생님과의 대화 등을 시도하며 한국어 능력을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중에서도 친구들과의 대화가 한국어능력을 가장 향상시키는 것으로 말했다. 한국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이라는 시선과 아르바이트 할 때도 한국어를 잘 못할 거라는 생각으로 설거지 등 단순한 일만 시킨다고 했다. 그래도 한국 친구들의 도움과 대안학교에서의 유연한 교육과정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견디고 적응해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 본국의 음식, 냄새, 가족 등 그리워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지만 그래도 친구와 선생님들의 응원과 격려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학교에서의 차별보다는 아르바이트 할 때 차별 경험이 더 많았다. 본국의 언어를 점점 잊어버리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쉽지 않았다. 한국에 와서 본국의 문화를 배울 기회가 없어서 본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다.

지금도 체류 문제로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을 안고 살고 있다.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다. 대학을 진학하여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해지고,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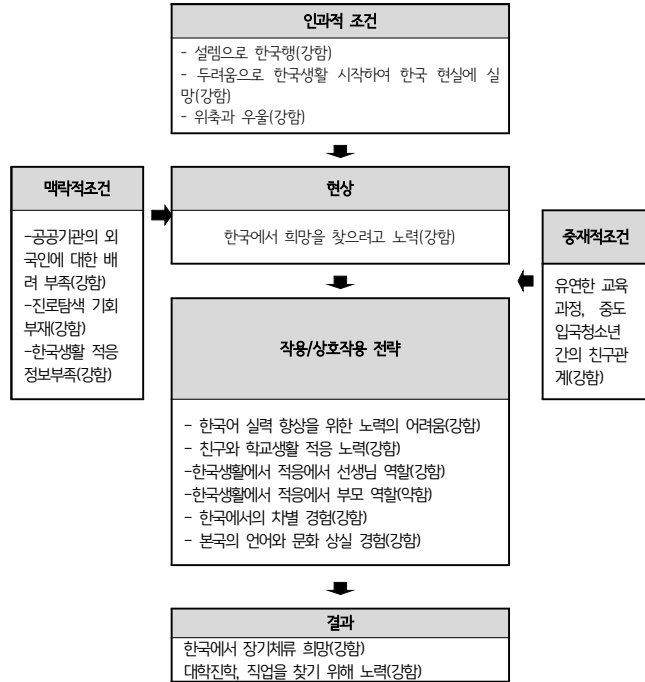
2) 유형분석

(1)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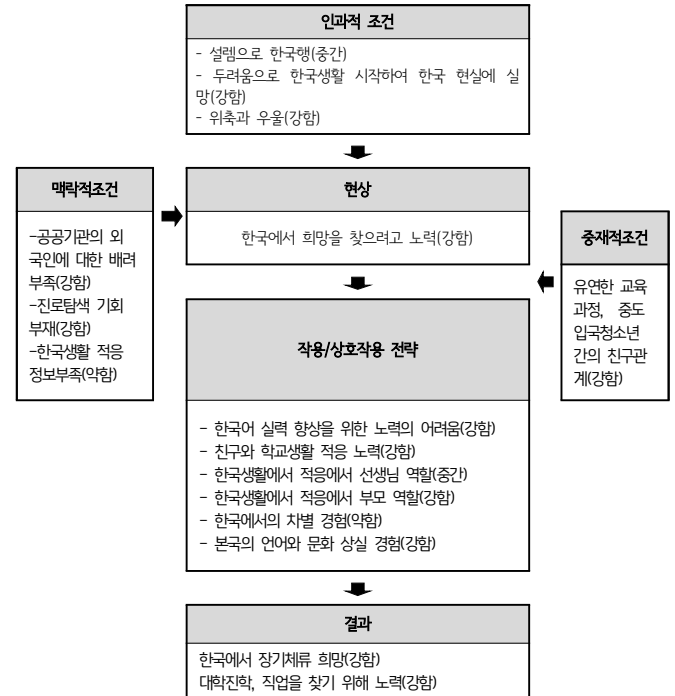
① 부모가 외국국적 동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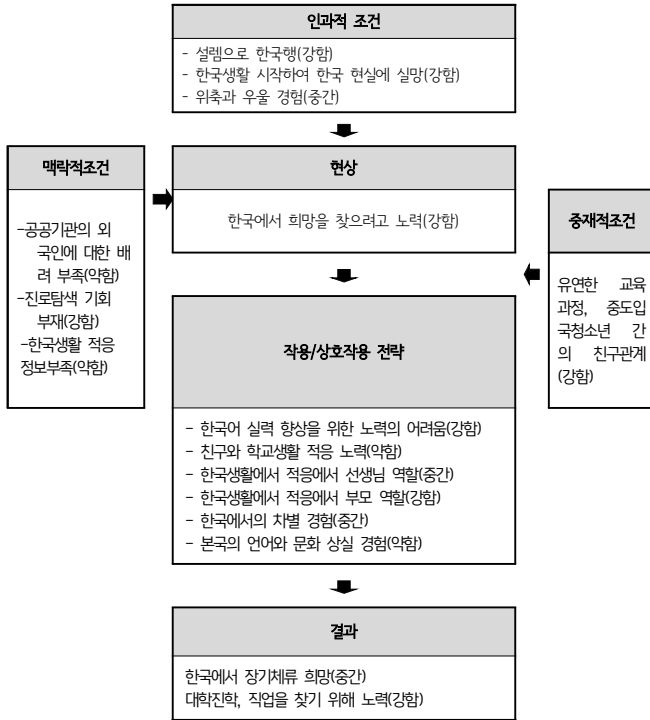
㉔ 부모가 외국인가정



(2) 중도입국청소년 귀화자 유형



(3) 중도입국청소년 한국인 유형



2) 중도입국청소년 유형별 분석 결과

[표 4-4] 중도입국청소년의 유형별 분석

개념	외국인		귀화자	한국인
	부모 동포	부모 외국인		
설렘으로 한국행(한국행 의지)	○	○	△	○
두려움으로 한국생활 시작하여 한국 현실에 실망	○	○	○	○
위축과 우울경험	○	○	○	△
한국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	○	○	○	○
공공기관의 외국인 표기 등 부족으로 한국생활 어려움	△	○	○	×
진로탐색 기회 부재	○	○	○	○
한국생활 적응 정보 부족	△	○	×	×
유연한 교육과정, 중도입국청소년 간의 친구관계	○	○	○	○
한국어 향상을 위한 노력의 어려움	○	○	○	○
친구와 학교생활 적응 노력	△	○	×	×
한국생활에서 적응에서 선생님 도움	○	○	△	△
한국생활에서 적응에서 부모님 도움	△	×	○	○
한국에서의 차별 경험	×	○	△	△
본국의 언어와 문화 상실 경험	×	○	○	×
한국에서 영주 권 취득 등 장기체류 희망	△	○	○	△
대학진학,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	○	○	○	○

(○: 강함, △: 중간, ×: 약함)

중도입국청소년의 유형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으로 이주 결정은 대부분 중도입국청소년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부모의 국제결혼에 의해 입국한 경우는 부모에 의해 한국으로의 입국이 진행되었다. 중도입국청소년 대부분 본인이 생각했던 한국 생활은 아니어서 한국 생활을

시작하여 한국에 대해 실망했다는 것이 모든 유형에서 나타났다.

위족과 우울 경험은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과 학습적인 어려움 때문에 중도입국청소년 전반적으로 나타나며 재외국민의 자녀는 한국인 부모의 도움, 친인척의 도움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희망을 찾고 영주 및 국적취득을 위해 학교생활, 직업찾기 등 노력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외국어 표기 등 부족으로 인한 한국생활 어려움은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귀화자인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났다. 진로탐색이 없어 주변에 의해 학교, 전공 등이 결정되는 것은 중도입국청소년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들로 나타났다.

한국생활 적응 정보 부족은 한국인이 부모가 있는 경우는 그 정도가 약하며 외국국적 동포의 자녀가 중간이며 외국인인 경우 그 정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연한 교육과정과 중도입국청소년 간의 유대관계는 모두 한국생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국어 향상을 위한 노력은 모든 중도입국청소년에게 나타나고 있었다.

친구와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유형은 외국인이며 귀화, 한국인 경우는 어려움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의 도움에 전반적으로 의지하고 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는 외국인 경우이며,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경우는 귀화자, 한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경험은 외국인인 경우 강하게 경험하고 있었다. 본국의 언어와 문화 상실 경험은 외국인 부모와 귀화자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장기체류 희망은 외국인가정, 귀화자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대학진학, 한국에서의 직업찾기 위한 노력은 중도입국청소년에게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제 5장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 연구결과 요약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으로의 이주를 본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했다고 인지하고 있다. 한류 등으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에 체류하는 부모에게 한국으로의 이주를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설렘으로 한국행을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으로 한국어 공부도 학교 입학에 필요한 서류 등의 준비없이 입국했다.

둘째, 좌절하며 다시 일어나 한국에서 미래를 꿈꾸고 있다. 한국에 와서 TV에서 봤던 한국의 모습과 달라 실망을 하고 무엇을 해야할 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다. 부모님이 지인을 통해 한국어교육 민간기관을 소개받아 한국생활에서의 모든 것을 해결해 가고 있다.

셋째, 사회통합의 촉진 요인은 한국어 능력과 또래 한국 친구들과의 관계이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어했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학교 편입학에 매우 유리했으며 기회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 향상된 것은 무엇보다 동기부여와 또래 친구들의 교류였으며 한국 친구들이 막막한 학교생활을 도와주어 적응이 빨랐고 한국어 능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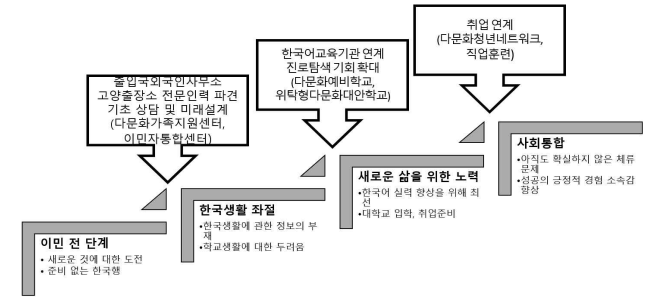
넷째, 대학교 진학이라는 성공 경험이 한국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강화하였다. 대학교 진학으로 인해 한국 구성원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했다. 성공의 경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에서 안정된 신분으로 직업탐색하고 있다. 부모의 체류유형에 따라 중도입국청소년은 체류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현재 비자가 유학비자이기 때문에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없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여섯째, 중도입국청소년의 외국국적, 귀화자, 한국국적(이중국적)인 경우 사회통합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정책 제언

1.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을 위한 고양시 맞춤형 정책모형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성인 이민자들보다 공공기관의 초기 개입이 중요하다. 이에 고양시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모형은 중도입국청소년이 입국하는 순간부터 사회통합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양시 관내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관내 외국인관서에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 편입이나 한국어교육기관, 병원 등의 서비스기관을 연계해 주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외국인 신분인 중도입국청소년과 귀화자, 재외국민 한국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보에 관한 것이다. 외국인 신분인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연구 결과에 나타났다. 부모에게 중도입국청소년의 편입학과정, 방법, 필요서류, 한국생활 적응 등의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도입국청소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한국어교육에 대한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집중적인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고양시 관내 초중예비학교에 예산 지원 등을 지원하는 연계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외국인 신분인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신분의 안정성이다. 영주 또는 국적취득을 희망하고 있으나 원하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기는 너무 어렵다. 영주나 국적취득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상담장구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르바이트와 취업이다. 취업과 체류연장이 연계되어 있어서 미래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알선해 줄 수 있도록 관내의 다문화 청년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2. 고양시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 확보

중도입국청소년 중에는 체류 등의 문제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아 체류자격 변경이 안된 경우가 있었다. 중도입국청소년이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류 문제 상담, 학교 연계, 진로선택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관내 외국인관서에 상주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중도입국청소년에게 진로탐색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학교 진학 등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 연구 및 실행이 필요하다. 현재 고양시에서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4. 상호문화주의 교육 실시

고양시 관내의 중도입국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에게 중도입국청소년의 본국의 문화와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전경숙·이익정 (2012).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자녀 초기적응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보고서 2012-06.
- 양승주·신현옥·윤상석·허은영 (2016). 다문화 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 방안. 교육부.
- 양계만·조혜영 (2011). 중도입국청소년의 실태조사연구, 무지개청소년센터. 한국어성정책연구원.
- 배상률 (2016).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19.
- 양계만·조혜영 (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 사회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1): 195-224.
- 장영선·송연숙 (2012). 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1-324.
- 서덕화·조은혜 (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상황과 그 생태학적 조건에 대한 탐색. 교육문화연구 23(1): 217-247.
- 고남정·오성배 (2016). 학교 재학과 학교 밖 기관 이용 여부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2(4): 271-289.
- 최동훈 (2014). 중도입국청소년의 출신 국적과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1(1): 97-126.
- 문병가·라휘문·한승준(2015).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종합진단 및 개선방안. 법무부연구보고서 2015: 5.
- 김이선. (2011).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V). 한국어성정책연구원.
- 김이선. (2012).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대응방안 연구. 한국어성정책연구원.
- 서덕화·김은석·조은혜·임경환(2015).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군 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 연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1-230
- 윤인진. (2019). 탈북민의 사회통합 모델과 통합 실태. 문화와 정치, 6(1), 61-92.
- 곽윤경·주유선·우선희(2019)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 실태 및 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성순. (2018).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의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27), 49-89.
- 이규용 · 김혜순 · 송영훈 · 최서리(2018). 한국사회의 이민과통합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박미정. (2015).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에 관한 연구. 국내대학위논문.
- 이성순. (2013).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4(3), 161-185.
- 문유경. (2011). 남녀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지표 개발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350
- 신윤정·이창원·이규용 (2018)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 방안: 이주 배경 아동의 발생·성장 환경 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17-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철경 · 최인재 · 강태화 · 손희정. (2015).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672.
- 최현덕. (2009). 경계와 상호문화성. 코기토(66), 301-329.

- 한국행정학회. (2018a). 국내 체류이동에 대한 실태조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구용역보고서.
- 전성훈·오은지. (2019).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 고양시정연구원.
- 차용호. (2015). 한국이민법. 법무사.
- 장한범. (2014). 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 교육과학사.

[해외문헌]

- Ager, Alastair, and Alison Strang. 2008. "Understanding Integration: A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Refugee Studies* 21(2): 166-191.
- Chow H P H. (2007). Sense of Belonging and Life Satisfaction among Hong Kong Adolescent Immigrants in Canada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3(3), 511-520.

[기타자료]

교육통계(2019). 다문화학생 유형별 현황. <https://kess.chedi.re.kr/index>(접속일 2020.07.19.)

국가통계포털(2018).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TX_11025_A000_A&vw_cd=MT_ZTITLE&list_id=110_11025_2015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접속일 2020.05.17.)

경기도교육청(2020). 2020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사업고 현황.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61&bbsMasterId=BBSMSTR_000000030028&menuInit=12,1,1,0,0&bbsId=999933(접속일 2020.05.10.)

국가통계포털(2019). 법무부· 국적·지역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8&vw_cd=MT_ZTITLE&list_id=A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접속일 2020.05.10.)